

특집1

중주국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책 서둘러야

22개국 148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97년 월드컵 태권도선수권대회(3월 6~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국가대표 1진이 출전한 한국은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해 중주국으로서의 체면을 지켰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한국태권도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에 부딪혔다.

체력의 두드러진 열세, 여자대표선수들의 국제경기 경험부족과 패배의식, 외국 강호

들에 대한 정보부족 등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임원 그리고 기자들로부터 간추린 카이로월드컵 리포트를 받아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해본다.

사라진 한국의 하이테크 남녀 모두 신장의 열세 극복

이 봉 (대한태권도협회 기획부장)

■ 월드컵 태권도대회의 연혁

1986년 7월3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처음 월드컵대회가 열렸다.

세계연맹산하 4개 대륙연맹에서 두 나라씩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국과 준우승국, 대회 개최국과 세계연맹의 추천국 다섯나라 등 16개 태권도 강국의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창설됐다.

여자부경기는 1990년 스페인에서 추가 됐다. 이집트 카이로는 1989년에 이어 월드컵대회를 두 번 유치한 유일한 도시다.

세계선수권대회는 80여개국의 참가로 선수들의 실력 편차가 큰데 비하여 월드컵대회는 16강국의 에이스급 기리 벌이는 경기로 수준이 매우 높은 대회다. 한국은 그동안 이대회에 대표 2진을 파견해왔고 여자부는 종합우승을 번번이 놓쳐왔다. 대만과 스페인은 한국여자 2진 파견을 틈타 여자

경기의 양대 산맥으로 성장해왔다.

■ 사라진 한국팀의 하이테크

태권도 세계에서 이제 경기력은 상향 평준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중주국인 한국의 선수만이 구사할 수 있는 고난도 하이테크는 그곳에 없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종목채택을 계기로 각종 올림픽위원회의 적극적인 태권도 육성의 결과라 생각된다.

참가 22개국 중에서 한국인 코치를 6개국에서만 채용하고 있다. 경기기술의 토착화, 탈 한국화에 성공했다는 반증이다.

국제심판진의 맨 파워 역시 한국인의 영향권 밖으로 성큼 벗어나 있었다. 38명의 국제심판 중에서 한국인은 10명에 불과했다.

세계태권도가족의 탈 한국화를 위한 도전은 어쩌면 올림픽체택이라는 한국인의 위업에 인과응보로 다가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태권도인들은 중중국 한국에 여전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태권도가족이면 누구나 중중국선수단에서 창의적인 경기기술, 불굴의 정신력, 빼어난 매너와 아울러 의연한 휴머니티를 찾아보기 원한다.

이를 외면하고 만족시켜 나갈 수 없다면 한국태권도에 대한 경외심은 시드니 올림픽에서 중언을 고향 것이다.

세계의 태권도가족은 중중국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 고귀한 신분에는 따르는 의무)를 갈구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과제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인가?

월드컵 3일간의 각축전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을 네가지로 정리했다.

- 남, 여 선수 모두 신장의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
- 체력강화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 국제정보의 취약이 전술능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 한국선수들의 기술유행이 국내경기용에 머물고 있어

국제대회용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됐다.

이상의 4가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본다.

① 선수대회를 위한 우수선수 조기발굴제도의 검토(예를 들면 소년체전 입상선수의 장기육성제도·연령별·체급별 장신선수 발굴·포상제도 등)

② 과학적 체력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전문체력강화 프로그램 개발의뢰)

③ 남, 여대표 선수단의 해외전지훈련 및 소규모 국제대회 파견 검토(세계 4강 또는 8강급 국가간의 전지훈련 및 친선대회 파견, 랭킹 10위권내 국제선수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구성)

④ 상비군 훈련때 코칭스텝의 신기술 개발 임무 부여 및 우수지도자 기술 개발, 세미나 개최 검토(신기술·신전술 개발 코치의 전임지도자 채용 및



▲유기대단장(가운데)이 남자부 우승트로피를 높이 쳐들고 있다. 오른쪽은 2위 이란.

포상 기술 개발, 세미나 우수 발표자 포상)

끝으로 국제대회에서 만나 본 수 많은 선배 사범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인 한국 선수단의 매너에 대한 생각을 남기고자 한다.

앞으로 대표선수단의 국제대회 파견전 강화훈련 기간에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친절하고 당당한 중중국 선수단의 매너야말로 경기에서의 금메달 이상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3분 3라운드 끝까지 뛸 체력키워야



▲ 양 대승 코치 (남자부)

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

이번 월드컵대회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는 국제경기의 흐름이 체력쪽으로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체력을 바탕으로 기술이 발

이번 대회에 출전한 1진 선수들은 중량급의 경우 역대선수들 중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진 선수들이다. 신장과 체력이 외국선수들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고 게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4-5년간 국가대표를 맡아온 경력이 있는 노련한 선수들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던대

회되는 것이다.

3분 3회전 내내 외국 선수들은 지치지 않고 이 기술, 저 기술은 모두 사용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선수들은 단순하고 정확한 공격을 위주로 하는 전략, 즉 한번 공격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몸이 배여서인지 공격을 다양하게 펼치지 못했다. 득점력에서는 앞서지만 3회전을 계속 적극적으로 뛰면서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기에는 체력적인 면이 부족한 것이다.

물론 결승까지 생각해서 체력안배를 해야하지만 한번 공격을 계속 이어가는 외국선수의 체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심폐기능 강화 등을 통해 체력과 근력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현재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1, 2진 선수들은 6주간 집중적으로 웨

카이로월드



▲ 임 신자 코치 (여자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국가원박물관에서 '95년 필리핀 세계대회 비디오를 입수해서 대륙별, 국가별 특색을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8명의 여자선수단 중에서 나의 소속팀(인천시청) 선수들이 4명이라는 점이 선수 개개인의 전력에 맞는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었다. 정명숙, 조항미는 그간의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과 세계컵 2개 정도의 체급을 더 욕심을 내서 적어도 3-4개의 메달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막상 선수들과 준비작업을 하다보니 생각과는 달랐다.

이번 대회에는 1진이 참가했지만 이제까지 2진이 참가해온 월드컵대회에서 여자부의 종합우승 경력이 전무한 상황이었어서 부담스러웠다. 본인도 5년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대회의 분위기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파악하기란

핀급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세계대학선수권이나 아시아 대회 등 국제대회 경험을 1-2번씩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대만이나 스페인, 터키 선수들에게 졌던 경험이 있어서 중국주 대표입에도 불구하고 겁을 많이 먹은 것 같았다.

일종의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정신교육을 통해 이번 기회에 중국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아야 한다는 자극을 주었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월드컵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대비해서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음을 느끼게 해준 대회였다.

먼저 대만의 경우 신장이 좋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선수를 적극적으로 선발해서 키우는 것이 눈에 띄었다. 우리의 경우 신장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테크닉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페인인 경우는 출전한 8명의 선수들이 고루 우수한 기량을 보여 안정세에 접어든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만한 상대는 러시아와 크

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받고 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신장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가장 뛰어나 밴텀급 1위가 184cm였고, 페더급에서 우승한 미국선수도 187cm였다. 신장의 차이로 우리 선수의 기술이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신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발놀림을 보완해야 한다.

이번 대회 종합 2위를 기록한 이란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8체급 경기 중 일곱 개의 체급에서 이란 선수와 맞붙어서 6명에게 이기고 1명에게 졌을 정도로 이란 선수들과의 각축이 심했다.

외국은 출전하는 선수들이 또 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의 전력에 관한 정보교류가 잘되는데 우리는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위험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경량, 중량급이 골고루 잘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느 체급에

누구' 하는 식으로 대표적인 선수가 있다. 협회차원에서 다른 나라 각 체급의 유망선수들의 경기 모습 등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대회를 대비해서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전략을 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 득점기준이 국내경기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근간에 주먹득점을 인정해왔는데 국제경기에서는 주먹득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자리에 주먹으로 가격을 했으면 주먹득점으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선수의 열거리를 발로 공격한 선수에게 득점을 주는 것이다.

이는 국제심판들이 득점에 대한 기준점이 국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에 임한다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주먹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은 심판교육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또 우리나라대로 상대가 공격해올때 앞발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컬리포트

로아티아.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지 2년여밖에 안된 두나라 선수들이 상당히 발달된 기술을 보여주었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레소토 같은 경우는 예상외의 난적이었다. 대만이나 스페인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기술이지만 이들은 경고를 받으면서도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올림픽에서도 골고루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신종 참가국이 비록 기술은 떨어지지만 국제대회 참가경력은 우리 선수들보다 많다. 외국의 경우는 몇년전에 참가했던 선수를 또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국내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자주 참가선수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국제대회 경험이 전문한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 처음 외국선수를 상대로 격려야하는 양태가 되풀

신장열세 패배의식 극복해야 다른 나라들 집중공략 움직임

등 호구외의 부위를 공격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가기가 힘들었다. 강한 체력과 국제대회 경험이 별로 없는 이들의 원시적일 수도 있는 공격기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또다른 나라들이 중량주먹으로서 강력한 전력을 지닌 남자부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분위기여서 국가적 차원에서 여자부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래야

이 된다.

이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국가대표 1, 2진 선수들이 평가전을 치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당해 연도에 선발된 선수들은 자주 국제대회에 참가시켜 감각을 익히고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대회만 하다가 막상 국제대회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기 때문이다.

Cairo World Cup Report



▲ 최 현 태(세계일보 체육부기자)

이집트로 향하는 발 걸음은 잔뜩 부풀어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나일강, 피라미다, 스피크스, 미이라 등 역사책에서 보아왔던 고대문명의 발상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커다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바레인-제다를 거쳐 카이로까지의 18시간에 걸친 오랜 여정도 이

때문에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필자의 이런 한가로운 생각과는 달리 '97 월드컵대회에 임하는 한국선수단의 각오는 비장했다. 지난해 2집금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놓쳤기 때문이었다. 얼굴들이 모두 1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한국팀의 필승의지를 집착하게 했다.

필자는 그래도 내심 중국 1진선수들인데 종합우승은 따는 당상이지 않겠느냐 하는 느긋한 심정으로 대회개막을 기다렸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보니 사정은 달랐다.

첫날 여자 라이트급에선 맥도 못추고 1회전에서 탈락해버렸고 다음날도 남자는 3체급을 싹쓸이했지만 여자는 단 1개의 금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마지막 날은 최악. 여자 페더·미들급, 남자 페더·밴텀급 모두 줄줄이 초반 탈락했다. 홀로 결승에 오른 여자밴텀급의 황은숙(인천시청)도 신장이 10cm 이상 차이나는 대만선수에게 현저한 기량차이를 보이며 2-9로 패하고 말았다.

천신만고 끝에 남녀 종합우승으로 중국국의 자존심

을 간신히 지켰을 뿐이었다.

태권도는 이제 중국국 한국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었다.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 결정된 '94년 이후 각국은 태권도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전략종목 삼아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한국을 턱밑에서 위협할 정도로 괄목 할만한 수준의 향상을 이뤘고, 특히 대만, 스페인, 이란, 미국선수들의 기량은 위협처원을 넘어서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을 정도였다.

더구나 이제까지 한국선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소 위압감을 느꼈던 외국인선수들이 더이상 중국국 선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더욱 놀라웠다. 기

뚜껑 여니 예상과 달라 대만, 스페인 등 맹추격

술이 보강된데다 신장과 체력에서 한국선수보다 앞서 있는 그들에게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나 할까.

물론 한국독주에 대한 외국심판진의 극심한 견제도 한몫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더이상 중국국이라고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카이로대회는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앞으로 3년. 한국은 특히 여자의 경우 장신선수들의 발골과 남녀모두 다양한 공격기술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어느 누구도 「2000년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한국의 메달잔치가 될 것」이라는 장담을 선볼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남자부 국가별 메달획득표 여자부

나라	금	은	동	계
한국	5	-	1	6
이란	1	1	2	4
미국	1	1	1	3
멕시코	1	-	-	1
이집트	-	2	2	4
스페인	-	1	3	4
프랑스	-	1	-	1
덴마크	-	1	-	1
필리핀	-	1	-	1
브라질	-	-	3	3
독일	-	-	2	2
호주	-	-	1	1
캐나다	-	-	1	1

나라	금	은	동	계
한국	2	1	2	5
대만	2	-	1	3
스페인	1	3	1	5
러시아	1	1	-	2
멕시코	1	-	2	3
이집트	1	-	-	1
독일	-	1	3	4
캐나다	-	1	1	2
미국	-	1	1	2
크로아티아	-	-	2	2
우크라이나	-	-	1	1
그리스	-	-	1	1
모로코	-	-	1	1

체급별 우승자

남자부

- 핀급**
- 1 김병태 한국
 - 2 Juan Antonio Ramos 스페인
 - 3 David Montalvo 미국
Marcos Pereira(브라질)
- 플라이급**
- 1 최만용 한국
 - 2 Talaat Mabrouk 이집트
 - 3 Mohammed Zarrinkolah 이란
Andre Yamaguti 브라질
- 밴텀급**
- 1 Mahdi Bibak 이란
 - 2 Steven Lee 미국
 - 3 Raymond Mourad 캐나다
Gabriel Esparza 스페인
- 페더급**
- 1 Steven Lopez 미국
 - 2 Mahmoud Shalaby 이집트
 - 3 Markus Boschek 독일
Bijan Moghanio 이란
- 라이트급**
- 1 심기선 한국
 - 2 Fariborz Askhari 이란
 - 3 Carlos Costa 브라질
Tamer Abd Ei-Monaam 이집트
- 웰터급**
- 1 김용훈 한국
 - 2 Alvin Taraya 필리핀
 - 3 Marco Scheiterbauer 독일
Jose Jesus Marquez 스페인
- 미들급**
- 1 Victor Estrada 멕시코
 - 2 Zacharia Asidah 덴마크
 - 3 이동완 한국
Rupen Montesinos 스페인
- 헤비급**
- 1 김제경 한국
 - 2 Pascal Gentil 프랑스
 - 3 Daniel Trenton 호주
Yehia Allam 이집트

여자부

- 1 Marwa Elhamy 이집트**
- 2 Amelia Negrete 스페인
 - 3 Iltham El Hadi 말레이시아
박정희 한국
- 1 서미라 한국**
- 2 Mandy Meloon 미국
 - 3 Fadime Karatas 독일
Agueda Perez 멕시코
- 1 Tang Hui Wen 대만**
- 2 Elizabeth Delgado 스페인
 - 3 황은숙 한국
Marijeta Zeljkovic 크로아티아
- 1 Lai Hsiu Wen 대만**
- 2 Marie Claude Boucher 캐나다
 - 3 Veronica Marquez 멕시코
Areti Athanasopoulou 그리스
- 1 Lioudmila Borodina 러시아**
- 2 Nicole Hartman 독일
 - 3 Liz Evans 미국
Joanne Nash 영국
- 1 Plena Benitez 스페인**
- 2 조향미 한국
 - 3 Sonja Schiedt 독일
Lyne Cote 캐나다
- 1 Monica Del Real 멕시코**
- 2 Ireane Ruiz 스페인
 - 3 Hsu Hsin Yu 대만
Iva Grvez 크로아티아
- 1 정명숙 한국**
- 2 Natalia Ivanova 러시아
 - 3 Sandra Martin 스페인
Bettina Hipf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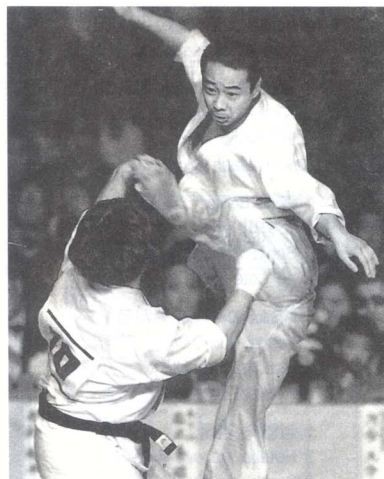
특집2

태권도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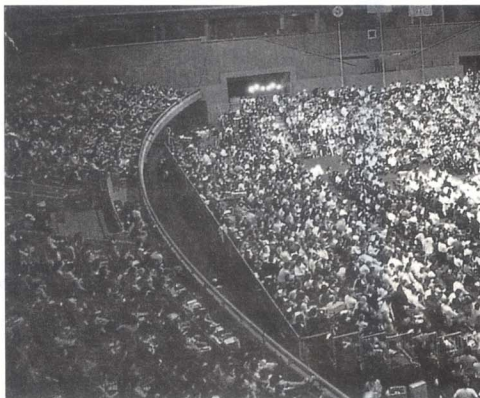
프랑스 유도, 극진가라데



▲프랑스의 뜨거운 유도열은 선수들의 투지를 화끈 달구어 열정이 벌어지게 만든다.



▲실전무도 극진가라데는 부상자가 속출하는 박력을 세 이즈 포인트로 내세워 관중을 끌어모으고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태권도의 본격적인 세계화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느낌이다. 온 지구가족이 태권도를 합리적인 무도 스포츠로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작 종주국인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태권도경기대회의 스탠드에서는 관중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고작해야 선수가족이나 소속팀의 응원단들이 목청을 돋우고 있을 뿐 태권도를 지지해주는 팬들이 보이지 않는다.

어째서 태권도경기장대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 것일까?

태권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도스포츠가 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프랑스에서는 유도대회가 열리면 관중석이 가득 메워지고 일본에서는 고(故)최영의관장이 창시한 극진가라데의 경기대회가 엄청 난 관중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프랑스유도와 극진가라데의 경우를 참고 삼아 태권도경기장을 관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관중으로 가득 채우려면?

관중동원 능력의 비밀



◀극진가라데의 세계선수권대회 마지막날 도쿄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중들. 사흘동안 통용해서 쓸 수 있는 특별석 관람권은 5만엔(약 38만5천원)씩이나 한다.

프랑스 유도가 인기 있는 까닭

중주국인 일본에서 유도의 인기는 시들하다. 가노컵 국제유도대회가 열리더라도 경기장 스탠드는 관중이 적어 썰렁한 분위기다.

일본의 유도전문잡지 「근대유도」(97년 2월호)가 「유도의 인기를 높이자」라는 특별기획 좌담기사를 실을 만치 일본유도계는 식어가는 유도열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같은 「근대유도」(94년 1월호)는 「어째서 프랑스에서는 유도의 인기가 높은가?」라는 특집 기사를 실어 프랑스 유도열의 원인을 분석했다. 유독 프랑스에서 유도불이 화끈하게 달구어지고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프랑스유도연맹의 등록인구는 약 46만명이며 등록하지 않고 유도로 맘을 홀리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인구의 2-3배로 짐작된다. 프랑스 유도인구는 줄잡아 100만명쯤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한국은 등록인구가 고작 3,800명(96년도)이고 등록하지 않은 유도애호가들 모두 합치면 약 30만명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은 등록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23만명 안팎이지만 프랑스에 견주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유도관계자들은 프랑스에서 유도가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조직의 충실」을 꼽고 있다.

프랑스 유도연맹을 정점삼아 9개의 지방연맹, 그

밑에 30개의 현(縣)연맹, 또 그 밑에 97개의 지구(地區)연맹으로 저변이 깔려 있으면서 전국에 5,200개의 클럽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스포츠 클럽 경영방식은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전혀 다르다.

개인이 경영하는 스포츠클럽은 이제 프랑스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각 시·구·동(市·區·洞) 등이 경영을 맡고 있다. 이 스포츠클럽들은 유도 뿐만 아니라 다른 몇가지 종목의 섹션을 지니고 있다. 각 스포츠클럽 가운데 유도부는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에 해당하는 체육스포츠성(省)으로부터 재정원조를 받을 뿐 아니라 프랑스유도연맹이 경영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코치도 당연히 전문직이며 일종의 공무원과 비슷한 자리여서 봉급을 받으며 유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 강력한 조직력을 배경으로 삼는데다 연맹이 열의를 지니고 유도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이 프랑스유도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또하나의 이유다.

프랑스유도연맹은 46만명의 등록인구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어떤 스포츠이건 그 인기와 앞날을 좌우하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이 유도를 익혀 좋아하게 되고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이번에는 자기에들에게 유도를 관망시킨다. 이런 패턴이 되풀이 됨으로써 한없는 발전을 이어서게 된다.

프랑스에서 유도는 「교육적인 스포츠」로서 인식

되고 있다. 유도는 단지 승패를 겨루는 경기가 아니라 도덕을 배우는 인성(人性)교육의 스포츠라는 것이다. 프랑스유도 연맹은 유도의 이러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PR하는데 힘쓰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애들에게 유도를 배우도록 배려하고 있는 또하나의 이유는 맛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스포츠클럽의 유도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유도의 유급자 떠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다르다.

밤색, 오렌지색, 초록색, 푸른색, 그리고 두 가지색을 합친 것등 검은 띠까지 여러개의 단계를 만들어 놓고 한단계씩 진급하도록 어린이들의 성취의 욕을 자극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새로운 띠를 따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마련이다.

또 국가대표팀의 정상급선수들과 어린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이벤트는 돈을 받고 있지만 중앙의 프랑스유도연맹이 기획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부조직인 지방연맹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자기 나라가 강하다는 국수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물론 다른 스포츠의 인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다. '95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나 차지해 종합 3위를 차지한 프랑스는 지난해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도 금 3개로 종합 2위를 누려 유도강국임을 온 세계에 자랑했다.

프랑스의 경기단체 가운데 TV를 통해 자기네 종목을 보급 선전하고 있는 단체는 유도 뿐이다.

프랑스유도연맹은 「유도를 합시다」라는 TV광고를 내보내 연간 약 3,000만명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연맹의 조직, 설비, 인재, 재력, 기획력 등이 열광적인 팬을 낳게 하고 있으며 그 뜨거운 불을 바탕삼아 엘리트선수 양성에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프랑스 유도다.

스포츠아닌 무도 극진가라데의 인기

일본에서 가장 관중동원 능력이 큰 무도는 무엇일까?

유도? 검도? 합기도도 아니고 IOC(국제올림픽위

프랑스유도 5200개 클럽에 등록인구 46만명 정부지원 아래 강력한 조직력

지방연맹에서 비용을 마련해서 대표팀을 초청하면 어린이들도 유료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운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챔피언들의 강연이나 유도의 품새를 보이는 쇼 등 팬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열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유도의 높은 인기를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역시 세계챔피언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란다. 프랑스 최대의 스포츠신문인 「레키프」의 몽테뉴기자는 「유도가 프랑스에서 인기있는 것은

원회)가 공인한 WKF(세계가라데도연맹) 가라데도 아니다.

94년 이 세상을 떠난 고(故)최영의관장이 창시한 극진가라데가 가장 많은 관중을 일본에서 끌어 모으고 있는 무도다.

극진가라데가 일본의 기존 가라데 유파(流派)와 다른 점은 아무런 호구도 걸치지 않은채 손에 의한 안면공격, 그리고 굵소공격 등만 금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를 자유롭게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기존 가라데는 공격을 상대방 몸 바로 앞에서 멈추는 「순도메」(寸止) 물을 적용하고 있다. 승패는 어느쪽 공격이 빠르고 정확하고 강했느냐를 살피는 심판의 판정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 기존 가라데의 경기다.

그러나 최영의 관장은 「그렇게 해서는 어느 쪽이 진짜 강자인지 가려낼 수 없다. 실제로 치고받고 해보아야 누가 강한지 알 수 있지 않은가!」라고 과감히 풀 컨택트(FULL CONTACT) 경기방식을 채택한다.

다른 유파의 가라데 지도자들은 「극진가라데는



▲어린이들과 세계챔피언들과의 만남

경기등록자 카드란?

프랑스 유도연맹에 등록된 등록자는 경기등록자카드(패스포트)를 받는다. 프랑스에서는 이 등록자카드가 없으면 경기에 출전 할수가 없도록 돼 있다.

어린이용 등록자카드는 성인과 달라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다. 유명한 인기만화의 주인공 공이 등장한 8컷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각 그림은 예의, 겸손, 경의, 성실, 용기, 자제, 우정, 명예 등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가 이 8가지 덕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달성했다고 지도자가 인정하면 「참했습니다」라는 뜻으로 컬러실을 그곳에 붙여준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8개의 실을 모두 얻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은 어린이들의 정신을 순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물론이다.

경기나 강습회에 참가할때 ID카드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행사의 기념스텝프로 받고 유명선수의 싸인을 받는데도 이용된다.

한마디로 이 카드를 펼치면 어린이들은 유도



▲8가지 덕목이 만화로 그려진 어린이등록자카드

에 관한 자신의 진보나 경험을 시각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카드를 펼쳐보이면서 「나는 올해의 여름방학유도강습회에 참가했어」라고 자랑도 하면서 유도와 친숙해진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쯤은 채택을 생각해볼만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싸움가라데이고 사권(劬券:울지 못한 주먹)이다」라고 비난하면서 따돌렸으나 차츰 실전가라데로서의 인정을 해외에서부터 받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온 세계에 130개 회원국 1,200만명의 수련인구를 안는 큰 세력으로 뻗어났다.

극진가라데는 1969년 제1회 일본선수권대회 개최한 것을 첫머리로 매년 일본선수권대회를 열어왔으며 세계선수권대회는 1975년에 첫대회를 열고 그 뒤부터 4년마다 치러지고 있다.

호구를 걸치지 않고 상대방 몸을 가격하는 경기방식이기 때문에 박력이 넘쳐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면 2만명을 넘는 관중들이 몰려 입장권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압표장사가 설치기도 한다.

사흘동안 내리 관람할 수 있는 예매특별석 관람권은 5만엔(약 38만5천원), 당일 특별석 관람권은 1만 5천엔(약 11만 5천 5백원), 당일 2층 A석 7,000엔(약 4만 3천 9백원), 당일 3층 B석 3,500엔(약 2만 7천원)으로 관람료가 결코 만만치않은데도 매진되는 경우가 많다.

극진가라데의 매력은 아무래도 실전무도로서의 박진감이다. 호구를 걸치지 않고 격돌하다보면 갈비뼈나 빗장뼈 부러져 들것에 실려나가는 선수도 적지않다. 1975년의 극진가라데 첫 세계선수권대회에 초청받아 참관한 엄운규관장(현 국기권 부원장)은 「극진가라데는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말했

을 정도로 선수의 안전보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극진가라데는 스포츠가 아니다. 무도다』라고 생긴 것의 최영의광장도 서슴없이 시인 했었다. 따라서 일본의 다른 유파 가라데를 의식해서 「가라데가 올림픽에 들어간다면 극진 가라데가 들어가야 된다」고 외치고는 있었으나 현재의 경기방식으로는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란 도저히 바랄 수 없다는 것도 최영의 관장은 잘알고 있었다.

선수의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스포츠로서는 큰 강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극진 가라데는 경기장 안에 철저히 무도의 분위기가 풍기도록 여러가지 연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우선 경기개시를 알리는 신호로서 일본의 큰 북을 친다. 그리고 개막하기 전 휴식시간 등에는 비장한 행진곡조의 「극진가라데의 노래」를 밴드가 연주한다. 휴식시간에 관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두꺼운 열음 4장을 간격을 때어 포개놓고 깨뜨린 다든지 혹은 야구 방망이를 세워놓고 발로 차서 꺾는다든지의 격파시범도 보여준다.

또 극진가라데는 대회명칭을 오픈 토너먼트(Open Tournament) 전일본가라데선수권대회라고 내세운다. 오픈 토너먼트란 가라데의 다른 유파 뿐만 아니라 어떤 격투기의 선수들에게도 대회참가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뜻이다.



▲극진가라데 총수
고 최영의 관장이 격파
시범에서 벽돌 두장을
깨뜨려 관중들을 열광
시키고있다.



한마디로 『어느 격투기의 선수가 참가하더라도 극진가라데는 이들을 맞아 싸울 수 있는 실력을 지니고 있다』는 선전효과를 노린 대회명칭인 셈이다. 하지만 다른 격투기의 손꼽힐만한 강호가 극진가라데의 경기대회에 출전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극진가라데에서 이름을 떨친 선수들이 프로격투기로 전향한다든지 혹은 또다른 유파의 가라데도장을 창설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해아릴 수 없을만치 많다. 아무튼 황소뿔을 땀손으로 꺾고 미국, 유럽원정에서 다른 격투기선수들과 겨루어 전설을 남긴 최영의관장은 무도임을 내세운 경기홍해를 성공시킨으로써 탄생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극진가라데를 일본의 대표적인 가라데로 성장시켜 놓았다.

JAL(일본항공)이일본의 다른유파를 제쳐두고 극진가라데를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로서 후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가라데의 나라 일본에서 극진가라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짐작이 갈만하다.

태권도를 보다 재미있게

얼핏 보기에 사회체육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유도와 때로 상대방의 뼈를 꺾는 무도 극진가

라데는 전혀 다른 타입의 경기운영으로 각자 관중동원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 쉽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두가지는 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사체육인구를 저변으로 삼고있는 프랑스유도도 궁극적으로는 세계챔피언, 유럽챔피언들의 끊임없는 배출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극진가라데도 한무더기 정상급 선수들의 저변에는 온세계에 1,200만 수련인구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보면 한국의 태권도는 저변인구도 많고 엘리트선수의 수 또한 세계정상급이니 경기장을 관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근본적 요건은 마련돼 있는 셈이다.

다만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무도 보다 한걸음 앞서있는 선수의 안전대책은 그대로 살리면서 경기물을 재미있게 개정한다. 공격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실시하는 차등점수제의 채택 등으로 경기의 흥미와 박력을 더한다.

② TV화면에 다채롭게 비칠 수 있도록 도구와 도복의 디자인과 색을 과감히 바꾸어 바람직한 컬러화를 이룩하고 어려운 기술을 슬로우모션으로 다시 비추주면서 재미있고 알기쉬운 해설이 곁들여지도록 TV와 협력한다.

③ TV광고를 펼치는 프랑스유도처럼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태권도에 참여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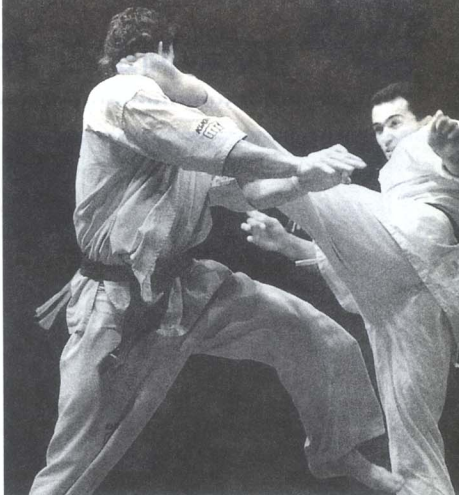
④ 극진가라데처럼 격파시험을 휴식시간 등에 끼워넣어 태권도의 위력을 관중들에게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출에 신경을 쓴다.

⑤ 어린이수련생과 국가대표급선수들의 친선합동 훈련 등을 자주 개최해서 어린이들부터 먼저 진정한 태권도팬이 되도록 만든다.

⑥ 지난날이나 오늘날의 태권도 영웅들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클로즈업 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팬이 되도록 만든다.

⑦ 가방, 트레이닝복, 신발, 티셔츠 등 태권도 용품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농구의 경우처럼 젊은이들이 태권도차림을 선호하도록 이끌어 태권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태권도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태권도봉을 뜨겁게 일구는 노력을 진지하게 꾸준히 계속하는 일이라 하겠다.



▲유명한 극진가라데선수들은 다른격투기로 진출하거나 새로운 유파를 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격투기의 간판인셈이다.

겨루기 사이 사이 흥분조성 비길 경우 격파로 승패가려

언제나 무도적(武道的)인 측면을 강조하는 극진가라데는 겨루기 사이사이에 참가선수들이 의무적으로 격파를 하도록 경기규정이 정해져 있다.

격파의 재료로는 33cm×21cm의 넓이에 두께는 2.4cm의 상(杉)나무판을 사용한다. 선수들은 정권(正券:주먹), 족도(足刀:발날), 원비(猿臂:팔꿈치), 수도(手刀:손날)의 4가지 기술로 각각 한차례씩 모두 4차례의 격파를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등 겨루기 사이사이에 실시한다.

각자 자신이 격파 할 나무판의 장수는 규정장수인 3장 이상이면 몇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수가 첫번째 격파시기(試技)로 깨지지 않을 때는 「실패」로 득점이 되지 않는다. 「실패」했을 경우 다시 시도할 수가 있으나 이때에는 규정장수인 3장으로 제한된다. 두번째 격파에서도 또다시 실패할 경우 득점은 0점이 된다.

깨뜨린 장수가 그대로 격파의 득점이 되어 4차례 격파의 합계수가 그 선수의 격파 총득점이 된다. 이 격파는 관중들에게 4가지 기술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흥분을 돋울 뿐 아니라 겨루기에서 비겼을 때는 격파점수로 승패를 가리도록 되어 있어 선수들은 한장이라도 더 깨려고 안간힘을 쓴다.

연장전 끝에 겨루기에서도 비기고 격파점수도 같을 때에는 체중을 달아 몸무게가 가벼운 쪽에 승리가 선언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체중 차가 10kg이상 나지 않으면 승패는 가려지지 않고 재경기를 치러야 한다.

극진가라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관중이 철저하게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겨루도록 해서 승패를 가린다는 점이다.



▲비길 경우 격파로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선수들은 한장이라도 더 깨려고 최선을 다한다.



- 생년월일: 1977년 8월 26일
- 출생지: 전남 장흥
- 키: 165cm
- 학력: 단대초등학교, 풍생중학교, 풍생고등학교
한국체육대 체육학과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 수학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유치원 때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부모님의 권유
- 주특기: 스텝을 이용한 발차기
- 라이벌이 있다면?: 핀급 모든 선수들
- 주요 경기경력
 - '96 국가대표 1차 1위
 - '96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3위
 - '97 최우수 선수 선발 대회 3위
- 좋아하는 가수: 남자-전람회 여자-이소라
- 즐거부하는 노래: 투 유

핀급

자칭 이정재 박 희 강

(한국 체육대)

신중한 게임감각

코치의 한마디

제 2의 탄생을 한 선수다.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장에 이상이 있어 큰 수술을 하여 주위에서 선수 생명이 끝났구나는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본인이 강한 의지로 이 시련을 이겨내고 어머니의 극진한 정성으로 국가 대표 2진에 선발 됐다.

성격이 조용하면서 신중한 편으로 게임 감각이 좋아 게임을 자기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동작이 커서 상대에게 허점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이것만 보완하면 잠재성이 밝은 선수이다.

(문원재 코치)

- 좋아하는 텔런트: 남자-이정재 여자-최진실
- 좋아하는 음식: 부대찌개
- 좋아하는 간식: 빵 종류
- 재미있었던 만화: 드래곤 볼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 짜
- 인상에 남는 책: 아버지
- 즐거입는 옷차림: 블루진 흰색 티셔츠
- 취미: 영화 관람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 축구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키에 비해 몸이 너무 크고 동작 또한 너무 커서 빈틈이 많다. 너무 스피드에 의존해 연결동작이 잘 되지 않는다.

나에 포부는 나약함에 빠지지 말자다.
그리고 2000년 올림픽에 꼭 나갈 것이다.



▲이정재

플라이급

진종진 승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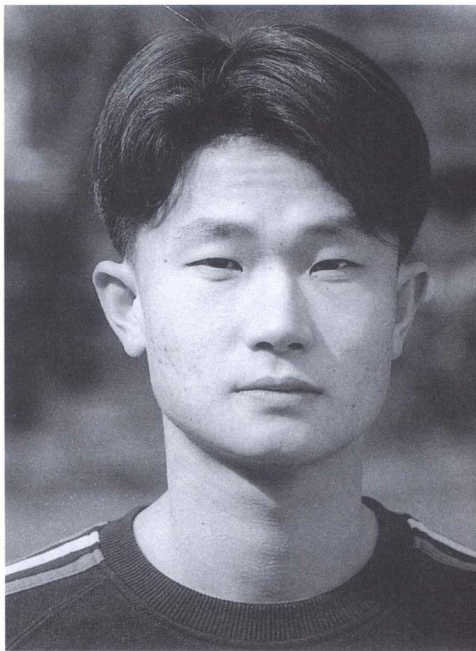
(경남협회)

알아서 자기관리

감독의 한마디

똑똑하고 꼼꼼하며 자기관리를 알아서 잘 하는 선수다. 자타가 공인하는 스피드와 기술력으로 세계대회에서도 여러번 우승하는 등 탄탄대로로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알려진 선수이다 보니 상대가 이 선수의 스타일을 금방 파악해버릴 수 있다는 흠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의 연마와 새로운 스타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연성을 가미하여 기술을 항상 시킨다면 더욱 매끄러운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경량급은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실력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자웅을 가리기 힘들다. 핀급에서 한 체급을 올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아끼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믿는다.

(정국현 감독)



- 생년월일:1973년 9월 5일
- 출생지:전북 전주
- 키:168cm
- 학력:전주 완산초등학교, 전주 완산중학교
경남 체육고등학교, 한국체육대 체육학과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영어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만 5세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호기심
- 주특기:원발 돌려차기
- 하루 훈련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 :나 자신
- 주요 경기경력
 - '93, '95 세계 선수권 우승
 - '94 아시안 게임 우승
 - '94 월드컵 우승
- 좋아하는 가수: 남자-조관우 여자-주주클럽

- 즐거부하는 노래:부르기보다 듣는 것을 좋아함
-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박상원 여자-최지우
- 좋아하는 음식:모두 다 좋아함
- 좋아하는 간식:아이스크림
- 재미있었던 만화:이현세의 아마게돈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시트콤
- 인상에 남는 책:남자의 향기
- 즐거입는 옷차림:캐주얼
- 취미:여행 및 드라이브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없음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정신력 보강, 기초체력 및 전문체력 보강,
게임 운영 및 점수관리,
올 한해 목표를 세운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도록 하겠다. (한번에 많은 것보다 한가지씩
계획적으로....)



▲아마게돈



맨텀급

피클 김 현 용

(영천 시청)

성실하고 말없이

코치의 한마디

성실하고 말없이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신장이 좋고 기본기가 잘 돼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선수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는 국가대표 1진이었던가 군복무로 잠시 주춤하면서 2진이 됐다. 투지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1진 복귀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선수촌에서 체력보강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니 다행이다. 침착한 성격으로 경기운영도 신중하게 잘하는 편인데, 키가 작은 선수와의 접근전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요령을 익힌다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전 경희대 전정우 코치)

•생년월일:1972년 10월 30일

•출생지:서울

•키:176cm

•학력:잠실초등학교, 배명중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경희대 체육과학대학원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체육 교육론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7살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건강을 위해

•주특기:뒷차기

•하루 훈련시간:5시간

•라이벌이 있다면?:나 자신

•주요 경기경력

- '94년 아시안 게임 1위

- '94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1위



▲이승연

•좋아하는 가수: 남자-김정민 여자-이소라

•즐거부하는 노래:아가씨

•좋아하는 텔런트: 남자-이정재 여자-이승연

•좋아하는 음식:김치찌개

•좋아하는 간식:빵, 떡

•재미있었던 만화:슬램덩크

•즐거보는 TV 프로그램:이소라의 프로포즈

•인상에 남는 책:남자의 향기

•즐거입는 옷차림:캐주얼

•취미:드라이브

•남다른 특기(태권도기술 말고):별다른 것이 없음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체력부족, 유연성 부족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

페더급

김 인 동

(조 선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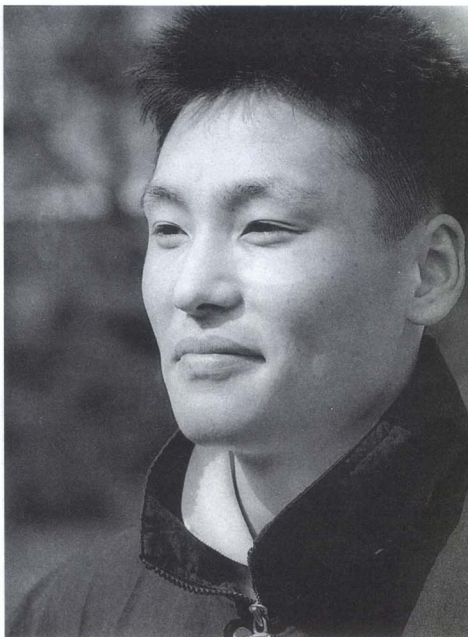
욕심 많고 체력 뛰어나

코치의 한마디

3년째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원래 축구를 했던 선수여서 그런지 체력적인 면이 아주 뛰어나다. 성격이 밝고 욕심이 많아서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한다. 고 3때 우수선수대회 1위를 하는 등 기량이 뛰어났는데 대학들어와서 잠시 슬럼프 기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본인이 이를 잘 극복하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조선대는 남녀 20명이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선수가 대표가 됨으로써 11년만에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다른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분발하고 있어 코치로서 고마운 마음이다. 경기에 있어서 좀 더 대담한 자세로 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계행 코치)



•생년월일:1976년 5월 2일

•출생지:서울

•키:178cm

•학력:대원초등학교, 풍생중학교

풍생고등학교

조선대 체육과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미술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중3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운동이 좋아서

•주특기:오른발 킥

•하루 훈련시간:5시간

•라이벌이 있다면?:신준식

•주요 경기경력

- '97 대표선발전 예선전 1위

•좋아하는 가수: 남자-김정민 여자-이소라

•즐거부르는 노래:트로트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이병헌 여자-이승연

•좋아하는 음식:김치찌개

•좋아하는 간식:빵

•재미있었던 만화:허황한 것 같아서 어릴때부터

별로 흥미가 없었음

•즐겨보는 TV 프로그램:테마게임

•인상에 남는 책:폭풍의 언덕

•즐거워하는 옷차림:청바지

•취미:당구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춤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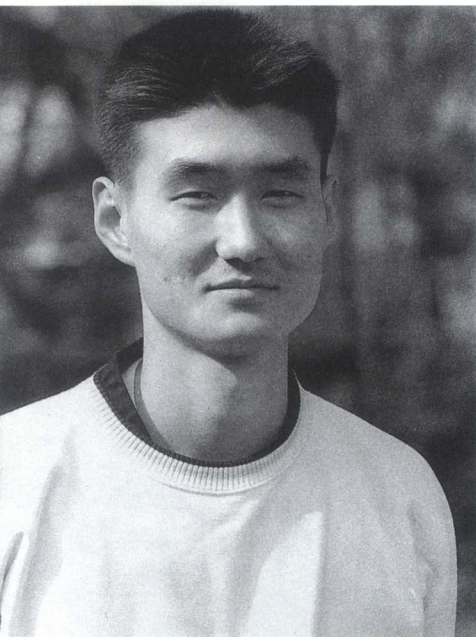
발파워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 은퇴 뒤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



▲이소라



라이트급

영킴이 김 병 옥

(국군체육부대)

안전하게 경기풀어

코치의 한마디

몸관리와 훈련량을 자신이 알아서 조절하는 선수다. 신장이 좋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득점을 뺏기지 않고 안전하게 경기를 뛰는 능력있는 선수다. 보완할 점이라면 단발위주의 공격에 치중하다 보니 연결공격의 묘가 아쉽다. 모든 기술을 쓸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가다 보니 화려한 기술이 나오지 못하는 면이 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경기시 부담없이 펼친다면 더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뜻 냉정해보이지만 친해지면 아주 재미있는 선수다.

(김제경 코치)

- 생년월일:1973년 9월 13일
- 출생지:전라북도
- 키:188cm
- 학력:성남제2초등학교, 양영중학교
풍생고등학교
한국체육대 체육학과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국사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초등학교 3학년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부모님의 권유
- 주특기:돌려차기
- 하루 훈련시간:5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곽택용(국군체육부대)
- 주요 경기경력
 - '92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 1위
 - '95 세계 선수권 대회 1위
 - '97 대표선발 1차 3위

- '97 최종 2위
- 좋아하는 가수: 남자-신승훈 여자-신효범
- 즐거부르는 노래:애인
-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박상원 여자-신효범
- 좋아하는 음식:짜게류
- 좋아하는 간식:분식류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미니시리즈
- 인상에 남는 책:영웅문
- 즐거입는 옷차림:캐주얼
- 취미:음악, 영화감상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농구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파이트링 있는 경기운영. 공격시 연타능력 배양.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

남자 국가대표2진 PROFILE

웰터급

양박사 양 원 철

(진로종합식품)

순간대응력 돋보여

감독의 한마디

영리하고 순간순간 대응력이 뛰어나다. 의리와 사명감으로 뚝뚝뚝친 선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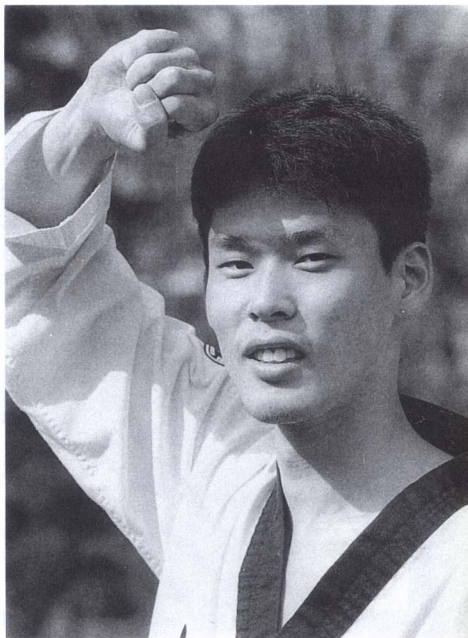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이제까지 실력발휘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 대표선발을 계기로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펼치기 시작하고 있다.

본인도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어서 본발을 기대해 본다.

보완해야 할 점이라면 본인도 잘 알고 있겠지만 유연성이 부족하고 동작이 커서 근접한 거리에서의 공격 기술을 더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재다능하고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선수다.

(정국현 감독)



•생년월일:1972년 3월 23일

•출생지:인천

•키:183cm

•학력:인천 문학초등학교, 구월중학교

강성고등학교

청주대학교 체육교육학과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체육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5살때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몸이 허약해서

•주특기:뒷차기

•하루 훈련시간:5시간

•라이벌이 있다면?:김경훈

•주요 경기경력

- '95 전국체전 1위

- '96 베트남 대회 1위

•좋아하는 가수: 여자·이선희

•즐거부르는 노래:트로트

•좋아하는 텔런트: 남자·정국현

•좋아하는 음식:한식은 다

•좋아하는 간식:아무거나

•재미있었던 만화:남벌

•즐거보는 TV 프로그램:쇼프로

•인상에 남는 책:아버지

•즐거우는 옷차림:캐주얼

•취미:쇼핑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구기종목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유연성보완

체육대학교수나 진도자 등 체육에 관한 전문적인 일을 하고싶다.



미들급

팅팅이 김 민 우

(동아대)

냉정한 경기운영

감독의 한마디

실업팀에 1년 있다가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기들보다 한 학년이 낮는데 이를 개의치 않고 성실히 숭선수범하는 생활을 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멋진 선수다.

미들급 선수로서는 신장이 열세인데도 의지력을 갖고 열심히 뛰어 지난해 월드컵에서 1위를 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아주 느긋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선수인데 경기때는 냉정하고 차분해진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순발력 부분인데 이는 하이 점핑 등의 근력과 순발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김유구 감독)

- 생년월일:1976년 1월 21일
- 출생지:부산
- 키:180cm
- 학력:장림초등학교, 영남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동아대 경기지도과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음악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5살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몸이 허약해서
- 주특기:원발 공격
- 하루 훈련시간:5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미들급 선수 전원
- 주요 경기경력
 - 77회 전국 체육대회 미들급 1위
 - '96 국가대표 최종선발 2위
 - '96 월드컵 태권도 대회 1위

- 좋아하는 가수: 남자-김민중 여자-신효범
- 즐겨부르는 노래:나훈아의 영영
- 좋아하는 텔런트: 남자-이병헌 여자-오연수
- 좋아하는 음식:김치찌개, 짜장면
- 좋아하는 간식:과자
- 재미있었던 만화:슬램덩크
-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첫사랑
- 인상에 남는 책:남자의 향기
- 즐거입는 옷차림:청바지
- 취미:당구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농구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원발의 공격력은 좋은데 비헤 오른발의 발차기가 잘 안됨.
앞으로 오른발의 공격력을 향상시켜 좀더 공격력을 향상시키겠다.

헤비급

아랑드롱 **빙 원 철**

(한국체육대)

돌려차기 높은득점

코치의 한마디

기독교 학생회장으로서 신앙심을 갖고 묵묵히 자기 일에 열중하는 성격이다.

전남 여수고를 나와 대학에 입학하여 미들급에서 줄 곳 2위 선수였으나 96년들어 헤비급으로 한체급 올려 제기량을 발휘, 1차 대표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 2진으로 발탁 되었다.

보통 선수와는 달리 원발 힘이 좋아 돌려차기 득점력이 높은 반면 단점으로는 원발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좀더 다양한 기술 보완과 오른 기술을 연마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원재 코치)

*생년월일:1975년 11월 3일

*출생지:전남 여수

*키:183cm

*학력:여수동초등학교, 여수중학교

여수고등학교

한국체육대 체육학과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국어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초등학교 5년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친구 권유로

*주특기:원발 받아차기

*하루 훈련시간: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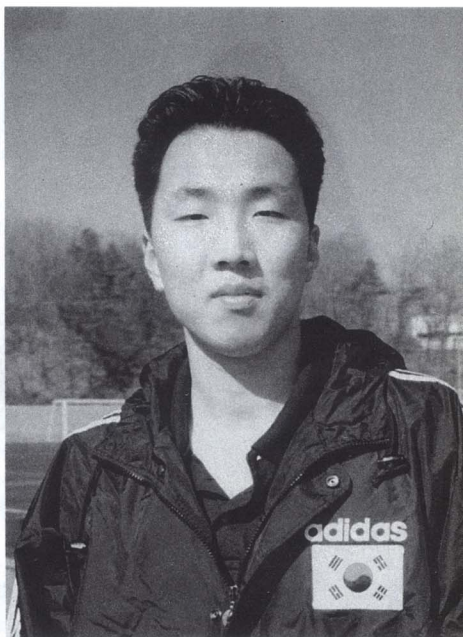
*라이벌이 있다면?:문용철 외 모든 선수

*주요 경기경력

- '94 대통령기 1위

- '96 대학 연맹 1위

*좋아하는 가수: 남자-최인혁 여자-김지애



*즐거부르는 노래:난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박중훈 여자-이은경

*좋아하는 음식:김치찌개

*좋아하는 간식:

*재미있었던 만화:슬램덩크

*즐거보는 TV 프로그램:첫사랑

*인상에 남는 책:화해의 아이

*즐거입는 옷차림:청바지

*취미:기타치기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기타치기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원발에 이은 오른발 연결이 부족하다.

오른발 돌려차기와 뒷차기는 개발해야겠다.

앞으로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중훈



핀급

손오공 양 소 희

(한국체육대)

선후배관리 원만

코치의 한마디

대학 4년동안 핀급을 장악한 자타가 인정하는 대표 선수다. 성적이 매우 좋아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며 자기관리를 잘한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으나 지난 세계대회에 도전하여 우승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선수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기술과 파워있는 공격력이며 단점으로는 신장이 큰 선수에게 다소 위축감을 가지고 있다는점인데 이것도 노련한 경험으로 잘 이끌어 가는 선수다.

(문원재 코치)

- *생년월일:1976년 4월 8일
- *출생지:충남 천안시
- *키:160cm
- *학력:천안 중앙초등학교, 천안북자여자중학교
천안여자고등학교
한국체육대 체육학과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체육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중 3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친구의 권유
- *주특기:앞돌려 차기, 빠른발
- *하루 훈련시간:3~4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박정희 외 다수
- *주요 경기경력
 - '94 아시아 선수권 3위
 - '95 세계 선수권 2위
 - '96 아시아 선수권 1위

- *좋아하는 가수: 남자-이지훈 여자-양파
- *즐거부르는 노래:남겨진 독백
-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안재욱 여자-최진실
- *좋아하는 음식:닭고기
- *좋아하는 간식:과일
- *재미있었던 만화:드래곤볼, 슬램덩크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별은 내 가슴에
- *인상에 남는 책:어린 왕자
- *즐거입는 옷차림:편안한 캐주얼
- *취미:영화, 비디오 감상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포켓볼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연결동작이 부자연스럽다.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올림픽도 나가고 싶다.

여자 국가대표2진 PROFILE

플라이급

작은 할아리 윤 송 희

[한국체육대]

힘과 스피드 좋아

코치의 한마디

힘과 스피드가 좋은 선수다.
이 선수는 태권도 가족으로서 아버님이 체육관을 운영하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갈수록 기량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힘있는 오른발 돌려차기와 뒤차기 기술이며 단점으로는 연습때와는 달리 경기에 임해서는 지나친 긴장으로 제 기량을 다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많은 국제 경기 경험과 국내 대회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문원재 코치)



- 생년월일:1977년 11월 24일
- 출생지:경남 서천 서포
- 키:160cm
- 학력:서울광장초등학교, 영성여자중학교
성일상업고등학교, 한국체육대 체육학과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음악, 물리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초등학교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아빠의 권유로
- 하루 훈련시간:3~4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서미라 외 플라이급 선수 모두
- 주요 경기경력
 - '94 국가대표 예선전 1위
 - '95 여자개인 1위
 - '96 대학연맹 1위
 - '96 국가대표 선발 2위
 - '97 국가대표 예선전 3위

- 좋아하는 가수: 남자-강산에 여자-이선희, 양파
- 즐겨부르는 노래:찬송, 복음성가
-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안재욱 여자-채시라
- 좋아하는 음식:아무거나 잘먹음
- 좋아하는 간식:주는 것 다 먹음
- 재미있었던 만화:천하무적 멍멍 기사
- 즐겨보는 TV 프로그램:별은 내 가슴에
- 인상에 남는 책:아버지
- 즐거워하는 옷차림:청바지 패션(캐주얼)
- 취미:영화감상, 편지쓰기, 쇼핑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노래부르기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발차기 공격시 정확한 득점이 부족하다.
빠른발 보완, 상단 보완이 필요하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
세계선수권도 거머쥐는 게 목표다.



밴텀급

쌍구 전 남 수

(경성 여실고)

어리지만 찬스강해

코치의 한마디

기회파악을 잘하고 찬스에 강한 선수다.
오픈발 받아차기를 주특기로 하는데 아직 어린 선수
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좀 더 가다듬고 많은 경기를
통해 실전경험을 늘려야 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훈련시킨다면 국가대표로
대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운동하기에 아주 적합한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
진 적극적인 선수다.
지도 코치와 떨어져 있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바란다.
화이팅!

(권오민 코치)

- 생년월일:1981년 11월 12일
- 출생지:대전
- 키:163cm
- 학력:동명초등학교, 경수중학교
경성고등학교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음악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초등학교 2학년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아빠의 권유로
- 주특기:원발 돌려차기
- 하루 훈련시간:4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 황은숙, 이지은 외 다수
- 주요 경기경력
-'97 국가대표 선발전 2위
- 좋아하는 가수: 남자-이지훈
- 즐거부르는 노래:왜 하늘은
그대 눈물까지도

- 좋아하는 텔런트: 남자-안재욱 여자-최지우
- 좋아하는 음식:된장
- 좋아하는 간식:후르츠 카레일
- 재미있었던 만화:짱구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별은 내 가슴에
- 인상에 남는 책:아버지
- 즐거입는 옷차림:캐주얼
- 취미:연애인 사진 모으기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미술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게임 도중에 흥분을 잘하며 게임 운영이 서툴다.
연결동작이 부자연스럽다.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다.

페더급

정 재 은

(한림여실고)

오기·집념 강한 선수

코치의 한마디

자양중학교때부터 6년간을 지도해 왔는데 한번 한다면 꼭 이루는 집념이 강한 선수다. 태권도 선수였던 오빠보다 더 잘하겠다는 오기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기본 발차기가 남자선수 못지 않으며 대학 선수들과 겨뤄 8점의 점수 차이로 승리하는 그야말로 '페더급의 떠오르는 별' 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다.

초기에 기본기를 확실히 익혀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아직 응용력이 부족한데 이는 대학에 가서라도 열심히 익히면 될 것이다. 선수생명을 중시해서 억지동작을 배제한 기본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선수부상도 없는 편이다. 아직 선배들의 노련미를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 패기와 힘으로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

(윤용근 코치)



•생년월일:1980년 1월 11일

•출생지:서울

•키162:cm

•학력:은천초등학교

자양중학교

한림여실고등학교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체육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국민학교 5학년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오빠가 운동을 해서
따라하다보니 자연스레
배우게 되었음

•주특기:왼발, 오른발, 오른발 받기

•하루 훈련시간:3~4시간

•라이벌이 있다면?:진용순 언니

•주요 경기경력

-중고연맹 1위

-최우수 선발 1위

•좋아하는 가수: 남자-김민중 여자-양파

•즐거부르는 노래:최신가요(모두)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이정재 여자-이승연
심은하

•좋아하는 음식:야채류

•좋아하는 간식:빵, 우유

•재미있었던 만화:순정만화(이슈)

•즐거보는 TV 프로그램:별은 내 가슴에

•인상에 남는 책:우리사는 동안에

•즐거우는 옷차림:캐주얼

•취미:독서, 음악감상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연타, 큰 동작
익히고 훌륭한 선수 거쳐 지도자 되고 싶다.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빠른 시일내에 국가대표 1진이 되는 것



- 생년월일:1977년 7월 9일
- 출생지:서울 행당동
- 키:170cm
- 학력:면중초등학교, 용곡중학교
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상명대학교 체육과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국어, 체육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초등학교 5학년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도복이 너무 입고 싶어서
- 주특기:원발 돌려차기
- 하루 훈련시간:3~4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신동선, 장지원 외 다수
- 주요 경기경력
- '96 대표최종 2위
- '96 국방부장관기 1위
- 좋아하는 가수: 남자-박진영 여자-인순이

라이트급

타조 강 해 은

(상명대)

양쪽발 모두 잘써

코치의 한마디

밝은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활발한 선수다. 중학교때부터 운동을 했고 기량과 노련미가 뛰어나다. 원래 왼발잡이인데 왼발, 오른발을 둘 다 잘 쓴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이라면 체력이 약하고 상대를 속일 수 있는 동작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계훈련에서는 체력보강에 힘썼다. 선수촌에서 네분 코치들 밑에서 1년간 훈련하게 될 텐데 열심히 해서 9월 선발전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길 바란다.

(김준테 코치)

- 즐거부르는 노래:또
-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안재욱 여자-최진실
- 좋아하는 음식:곱창
- 좋아하는 간식:과일
- 재미있었던 만화:이상한 나라의 폴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별은 내 가슴에
- 인상에 남는 책:고등어
- 즐거입는 옷차림:캐주얼
- 취미:독서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 오락게임
- 보완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홍분하면 방어 대비책 없이 들어간다.
오른발 뒷차기, 주먹걸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
세계대회 1위와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고 싶다.

여자 국가대표2진 PROFILE

웰터급

안근빵 안 근 아

(한국 체육대)

남보다 두배노력

코치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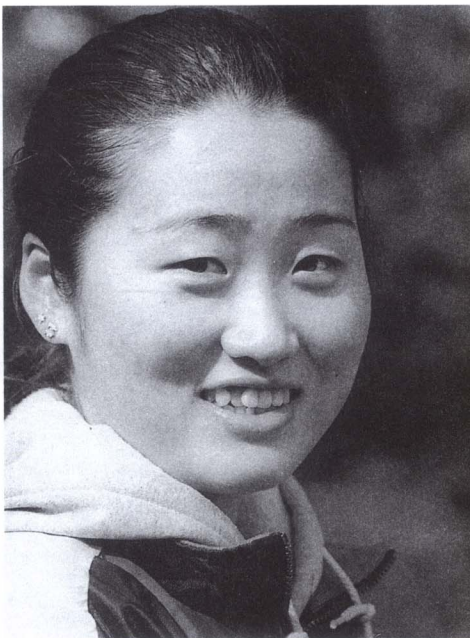
김제 복고 선수시설 그리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다. 체육대에 입학하면서 남들보다 두배 이상의 피나는 노력으로 많은 기량 향상과 발전으로 국가 대표로 선발 됐다. 주위 선수배들은 기숙사에서 쉬고 있을 때 홀로 체육관 불을 밝히고 개인 운동을 한 결과이다. 아직까지는 미완이나 오른발 돌려차기 독점력이 좋으며 왼 기술과 뒤차기 기술을 보완하면 장차 훌륭한 선수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 기대가 크다.
(문원재 코치)

- 생년월일:1977년 2월 7일
- 출생지:전라북도 김제
- 키:169cm
- 학력:김제초등학교, 금성중학교
김제복고등학교
한국체육대 체육과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음악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중학교 3년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부모님의 권유
- 주특기:돌려차기
- 하루 훈련시간:4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웰터급 선수 모두
- 주요 경기경력
-'97 국가대표 2위
- 좋아하는 가수: 남자-서태지와 아이들
여자-윤복희

- 즐거부르는 노래:꽃밭에서
- 좋아하는 텔런트: 남자-차인표
여자-김혜수
- 좋아하는 음식:모든 음식
- 좋아하는 간식:콜라
- 재미있었던 만화:없음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체협 삶의 현장
- 인상에 남는 책:바다로 간 목마
- 즐거입는 옷차림:정장 스타일
- 취미:노래 부르기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노래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상단, 뒤차기 보완해야 함.
세계대회 나가는 것이 목표



▲서태지와 아이들





미들급

소 우 연 정

(고려대)

공부잘하고 성실

코치의 한마디

하고자 하는 의욕과 성실성이 돋보이고 여러 사람과 부담없이 친숙해지는 장점을 가진 선수다. 고교 재학시절에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해 서였는지 머리가 비상하고 상대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한다.

그런데 너무 상대를 잘 파악해서인지 공격에 있어 저돌적이지 못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다. 다양한 기술의 훈련을 통해 단조로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로서는 태권도부가 생긴지 1년만에 우선수가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이어서 경사라고 할 수 있다.

(장 혁 코치)

- 생년월일:1978년 7월 22일
- 출생지:전북 남원
- 키:172,5cm
- 학력:대전홍릉초등학교, 대전가양중학교
대전새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체육, 영어, 생물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중학교 3년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 아빠의 권유로
- 주특기:오른발 받아 차기
- 하루 훈련시간:3~4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모든사람을 다 라이벌이라 생각하고 훈련함.
- 주요 경기경력
 - 77회 전국체전 1위
 - 최우수 선수 선발전 1위

- 좋아하는 가수: 남자-김민중 여자-양파
- 즐거부르는 노래:발라드 좋아하는데 노래방에선 뽕짝을 부름
-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이훈 여자-고현정
- 좋아하는 음식:회
- 좋아하는 간식:과일(수박, 딸기)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쇼 프로그램
- 인상에 남는 책:아버지
- 즐거워하는 오락집:캐쥬얼, 정장
- 취미:공작, 쇼핑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수영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상체운동을 많이 하고 경기운영의 노련미 길러서 꼭 세계대회에 나가고 싶다.

헤비급

달덩이 권 지 희

(리라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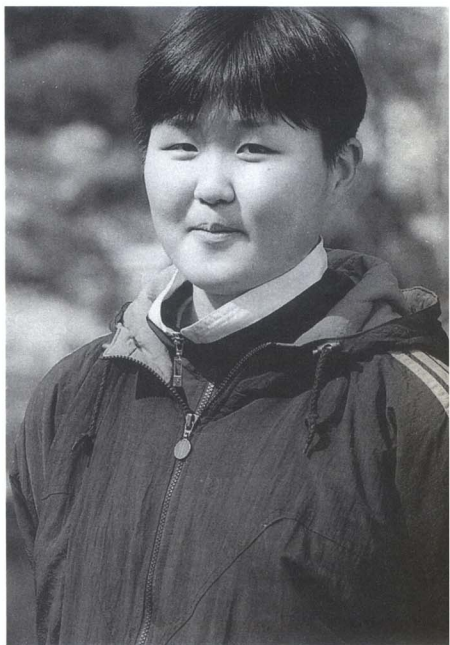
키크고 유연성 뛰어나

코치의 한마디

헤비급 서수로서는 유연성이 뛰어나고 신장이 좋다. 그런데 순발력이 떨어지고 기초체력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체력이 강화된다면 아주 기대되는 유망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체중조절을 통해 탄력성을 기르면 파워가 붙게 된다. 운동량을 더 늘려 제대로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1때부터 지도해왔는데 성격도 무난하고 교우관계도 좋다고 알고 있다. 중 2 초부터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운동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감각이 뛰어난 선수다.

(박영수 코치)



- 생년월일:1979년 4월 12일
- 출생지: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 키:178cm
- 학력:중마초등학교, 용곡중학교
리라공업고등학교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가사, 도덕
-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중학교 2학년
-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학교 선생님 권유로
- 주특기:오른발 차기
- 하루 훈련시간:3~4시간
- 라이벌이 있다면?:정명숙, 김윤경 외 다수
- 주요 경기경력
 - '96 여자 개인 선수권 선발대회 1위
 - '96 최우수 선수 선발전 3위
 - '97 국가대표선발전 1차 1위
 - '97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2위

- 좋아하는 가수:남자-구피 여자-양파
- 즐거부르는 노래:그대 눈물까지도(투투), 발라드
- 좋아하는 탤런트:남자-안재욱 여자-최진실
- 좋아하는 음식:전부다 잘먹음
- 좋아하는 간식:과일
- 재미있었던 만화:슬램덩크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드라마
- 인상에 남는 책:남자의 향기
- 즐거워하는 옷차림:캐주얼
- 취미:공작
- 남다른 특기(태권도 기술 말고):피아노 조금
-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포부
복근의 힘이 부족 스피드 보완
세계대회 우승



하 권 익 박사
삼성 서울병원
스포츠의학 과장

스포츠의학의 전문가들이 쓰는

어린이와 태권도



심 종 섭 박사
삼성 서울병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성장과 운동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신적인 발달과 더불어 신체적인 발달을 가져옴에 따라서 점점 운동 능력이 증가되는데, 성장 시기에 맞는 운동을 제대로 하면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어린이의 발육과 성장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많은 내재적,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대치와 실제적 상태 사이에는 격차가 다양하게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나 집주변의 환경이 급속히 산업

태권도의 기본

화, 서구화 된 까닭에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환경의 오염이 어린이의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 시설의 자동화, 자동차의 보급 등으로 어린이의 운동량이 과거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영양공급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운동능력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릴때부터의 규칙적인 운동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신체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힘과 지구력이 증강되면 운동수행 능력 역시 성장되기 때문에 운동과 성장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의 훈련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를 위해 몸에 맞는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비만도가 낮고 심장박출량과 호흡량이 커진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여자 어린이의 경우 심한 훈련 뒤 초경이 늦게 나타나거나 불규칙해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에 의하여 면역기능약화로 인한 염증이 자주 생기고, 훈련의 여러가지 손상에 의한

성장지연 등 오히려 지나친 훈련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어린이의 신체조직은 재생능력이 뛰어나 훈련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운동이 발육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선불리 모든 운동이 모든 어린이에게 일률적으로 좋다고 판단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어린이의 운동은 어린이의 연령, 신체적 특성에 맞추어서 알맞게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어린이의 신체 발달을 보면, 생후 2-3개월에 머리와 다리를 치켜올릴 수 있고, 5-6개월이 되면 혼자 뒤집고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후부터 주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낮가림이 분명해진다. 8-9개월이 되면 기어 다니게 되고, 혼자 잡고 일어설 수 있다.

이때는 주위의 여러가지 위험한 물체를 만질 수 있고 신체부위의 다양한 손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시작할 수 있는 연령에 속한다.

그러나 유치원 연령의 아이들은 아직 관절이 유연할 뿐만 아니라 골격이 약하여 항상 신체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흔히 이용

할 수 있는 놀이터의 철봉이나 그네, 구름사다리, 정글짐 등의 놀이기구에서 어린이들이 떨어져 다치는 손상이 가장 잘 발생하는 시기다.

6세에서 12세의 학령기는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러나 기술적인 운동수행능력은 매우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힘의 뒷받침이 따라주지 못하여 운동시 신체 손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

12세 이후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어른에 가까워지는 시기로 남녀의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어른에 가깝게 되는 시기다.

특히 남녀의 운동능력은 사춘기를 고비로 심화되며 남자는 힘, 속도 등의 능력이 증가되고 여자는 유연함이 남자에 비해 증가되게 된다.

학령기 청소년의 경우 약 10% 내외에서 해마다 운동과 관련된 신체 손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운동능력과 훈련량의 불균형이 큰 원인이라고 한다.

가령 예를 들어 기계체조를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하면 관절의 유연성을 극대화 하는데는 효과적이겠지만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이기지 못한 경우 자주 빠져나 심하면 탈구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성장기에는 물리적인 강력한 힘 말고 만성염증이 무릎, 팔꿈치 등의 관절 주위에 잘 발생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의 조절과 더불어 운동 프로그램의 다양한 변화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자세는 4살부터

있는 시기다.

대개 첫 뒹이 지나면서 혼자 일어날 수 있으며 15개월전에 걸을 수 있고 24개월이 되면 뛰어 다닌다. 24개월 이후부터는 간단한 맨손체조나 걷기 등을 가르칠 수 있으며 공을 이용한 공놀이를 즐길 수 있다. 3세를 전후해 계단을 오르내리고 세발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무릎부위의 안짱다리 등의 변형은 대개 이 시기를 전후로 저절로 교정이 되는데 남자아이들인 경우 공으로 하는 축구, 스케이트, 여아인 경우 발레, 수영 등 대중적인 스포츠의 기본 동작을 시작할 수 있다.

4세쯤에 가위질을 하고, 5세에는 줄넘기를 할 수 있다. 태권도 등의 격투기의 기본자세는 이 연령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하지운동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손의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기본자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치원 연령인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신체의 운동능력이 원하는 만큼 가능하여 여러가지 스포츠를 보편적으로

역대 세계 선수권 대회

(연재 제2호)

세계태권도인의 정신적 요람지인 국기원에서 제2회 세계선수권대회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30개국의 임원과 선수 252명이 참가한 가운데 1975년 8월 28일~31일 개최되었다.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4대주에서 참가해 명실공히 범세계적 규모의 국제행사였다.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그동안 지구 위 5대양 6대주 지구촌 오지에까지 보급돼, 제1회 세계대회에 이어 다시 종주국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의미가 깊고 태권도인은 물론 국민 모두는 뿌듯한 긍지감을 느꼈다.

이는 태권도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 원로지도자, 특히 해외에 나가 국위선양의 첨병으로 활약해 온 한인사범들의 노고,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총재의 의욕에 넘친 총체적 작품이라 하겠다.



이 경 명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국제 경기연맹 가입의 길을 열다

제2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국제스포츠계 VIP 참관

28일 개막식에서 박정희대통령은 김종필총리가 대독한 대회환영 메시지에서 “태권도의 정신이 평화이념과 정의구현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태권도의 보급을 통해 “국제간의 이해가 증진되고 세계평화가 이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참가선수들의 선전을 당부했다.

이 대회참관을 위해 18개국에서 102명의 참관단과 17명의 국제스포츠계 VIP, 그리고 21명의 해외 유공사범이 참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VIP 가운데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총재의 초청으로 참석한 국제경기연맹 오스카 스테이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로 발전하는 태권도

의 높은 수준에 매료되어 큰 관심을 표명했고,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국제경기연맹총회에 가입될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세계연맹 김운용총재는 28일 국기원에서 오스카 스테이트 사무총장과 보비나이두 국제스포츠기자연맹 사무총장에게 국기원 명예 5단과 3단을 각각 수여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그해 10월 국제경기연맹총회에서 공인 국제연맹으로 가맹되었다.

환희와 감동의 대접전

경기는 예선과 결승을 두 장소에서 펼쳤는데 8월 28일~30일 3일간은 국기원에서 1~3회전 예선전이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4대주 30개국, 252명의 선수참가 제3회 대회는 시카고에서 열기로

열렸고 4일째 최종일 결승전은 장충체육관에서 TV 실황중계로 치러졌다.

경기방식은 제1회 대회와는 달리 각국대항전, 체급별 일반 개인전으로 패자부활전 토너먼트식 경기였다. 경기시간은 2분 3회전, 30초 휴식이었고 선수참가자격은 국기원 공인 3단가까지 제한했다. 그리고 채점방법은 올림픽방식에 의한 메달수에 의해서 단체등위를 결정하여 금메달 1개는 은메달 다수에 앞서는 원칙이었다.

이 대회에 30개국 참가국 중 11개국팀은 8체급전 체급에 출전하였고 미국, 멕시코팀은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적응 훈련차 조기입국하여 훈련에 열을 올렸다.

대회 중반전에 돌입하자 대만, 필리핀, 미국, 멕시코팀은 치열한 경기를 전개했다. 특히 한국은 제1회 대회에 이어 중주국의 자부심을 걸고 8체급 모두 우승을 노리고 정통의 테크닉을 과시하며 전 체급에 무난히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한국의 미들급 양영관의 특징은 칼날같은 예리한 돌려차기였고 밴텀급 손태환의 앞차기, 돌려차기, 물러나며 뒤차기 등 날렵한 동작이 일품이었다. 특히 웰터급의 허송은 결승에 오르기까지 세 번이나 상대선수를 KO승으로 제압하는 선전을 보였다.



▲예선전은 8월 28일~30일 사흘동안 국기원에서 치러졌다. 마지막날인 3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해 참가선수들은 있는 힘을 다해 열전을 벌였다.

우승을 목표로 조기입국, 전지훈련까지 했던 미국팀을 기대보다는 저조한 경기를 펼쳐 겨우 동 1개에 머물렀다. 멕시코, 서독, 대만은 종합 2위를 다투게 됐는데 결과는 예상을 뒤집고 대만이 2위, 멕시코가 3위를 차지하였다.

이 대회 2연패한 선수로는 한국 미들급 양영관, 헤비급 최정도가 영광을 안게 되었다. 최정도는 결승전에서 서독의 레테켄 마이폴드를 맞아 백중지세로 우열을 가리지 못해 연장전까지 벌였으나 다시 무승부로 끝나 경기규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 추첨승을 거두는 행운을 안았다.

한국의 2연패 석권은 월등한 실력을 과시하여 중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양영관, 최정도 대회 2연패 달성

주국의 진면모를 보여줬다. 한국선수는 주특기인 돌려차기, 내려차기 등 뛰어난 기술과 득점작전 위주의 경기운영이 주효했다.

한국팀 단장에 이병로(1928-1982) 감독 이영근, 코치 고의민(독일거주), 김용희, 선수는 편급(-48kg) 황용수, 플라이급(-53kg) 한유근(캐나다거주), 밴텀급(-58kg) 손태환(캐나다인), 페더급

(-63kg) 이계승, 라이트급(-68kg) 유영함, 웰터급(-74kg) 허송, 미들급(-80kg) 양영관(스페인 거주), 헤비급(+80kg) 최정도였다.

■전 적

종합	1위 한국	- 금8
	2위 자유중국	- 은2 동4
	3위 멕시코	- 은2 동1
	4위 서독	- 은2 동1
	5위 호주	- 은1 동2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의 초청으로 대회를 참관한 국제경기연맹 오스카 스테이트 사무총장(오른쪽)에게 국기원 명예 5단이 수여됐다.

◀세계30개국 임원과 선수 252명이 참가한 제2회 세계선수권대회는 명실공히 범세계적 규모의 국제행사였다.

그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국제심판 강습회, 영문판 태권도교본 발간 등으로 세계연맹은 경기문화의 질을 향상시켰다.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를 계기로 창간된 「계간 태권도」(월간 태권도의 전신)는 제2회 대회가 열리기까지 계절마다 발간되어 태권도소식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진출해있는 사범들에게 알렸다.

- 핀급 1위 황용수(한국)
2위 Jaime de Pablos(멕시코)
3위 Liu Chin Wen(자유중국),
Yamane Hidesi(일본)
- 플라이급 1위 한유근(한국)
2위 Liu Chin Chien(자유중국)
3위 Jaime Martin(필리핀),
Moritz Von Marcher(멕시코)
- 반탐급 1위 손태환(한국)
2위 Ramiso Guzman(멕시코)
3위 Dennis Robinson(미국),
Leuchter Hubert(서독)
- 패더급 1위 이계승(한국)
2위 Danmen Wolfgang(서독)
3위 Martin Hall(호주), Reza Arab(이란)
- 라이트급 1위 유영함(한국)
2위 Michael Adey(호주)
3위 Paman Emmanuel(아이보리코스트),
Wang Tie Cheng(자유중국)

- 웰터급 1위 허송(한국)
2위 Liang Ping Hui(자유중국)
3위 A. F. Odut(우간다),
Theophile Dossou(아이보리코스트)
- 미들급 1위 양영관(한국)
2위 Steve Pound(람)
3위 Chang Ksiang Hsing(자유중국),
Alejandro Chacon, Zumvado(코스타리카)
- 헤비급 1위 최경도(한국)
2위 Lutecken Meinolf(서독)
3위 Lin Ying Teng(자유중국),
Carl Pluchmann(호주)

한인사범, 팀인솔

한국을 포함 30개국의 참가국 중 23개팀의 인솔자는 당면 한인사범이었다. 이번 대회의 참가국 중 가장 돋보인 팀은 공산권에서 온 유고팀이었다. 공산권 국가팀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에 참가한 것은 1961년 11월 월드컵 축구 예선을 갖기 위해 유고축구팀이 내한한 바 있다. 다시 태권도에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서 유고팀이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팀을 이끈 박선재단장은 이탈리아팀의 단장을 맡기도 하였다. 박단장이 유고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1968년 10월부터였다 한다. 당시 가라데 수련생들이 이탈리아의 잡지에 소개된 박사범의 태권도 기사를 읽은 것이 인연이 돼 유고에 태권도를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탈리아 시민권을 소지한 박사범은 로마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고 그 당시 나폴리대학에서 한국어교수로 있었다.

그는 가라데인의 초청에 응하기전 가라데의 띠를 일체 인정할 수 없다며 태권도를 배우고 싶으면 다시 흰 띠를 매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조건을 주장해 대부분 수련생들이 떨어져 나가고 7명만 태권도로 전향. 그중 4명이 이번 대회에 선수로 참가하게 된 것이었다.

선수들은 장발에 청바지를 입고 있어 큰 호기심을 모았다.

여기 참가국별 한인사범을 적어본다.

- 이란=김광근(코치)
- 우간다=김남석(코치)
- 홍콩=송강용(단장)
- 과테말라=김용덕(감독)
- 미국=조시하, 민경호, 권정남(코치)
- 괌=지동주(단장) 김종규(코치)
- 영국=이완중(코치)
- 엘사바들=최병호(코치)

- 독일=신부영(코치)
- 필리핀=박용만(코치)
- 네덜란드=서명수(코치)
- 멕시코=문대원(코치)
- 프랑스=이관영(감독), 방서홍(코치)
- 이집트=노승욱(단장)
- 모르코=김명옥(코치)
- 코스타리카=양원근(단장)
- 일본=강정협(코치)
- 대만=송상근(코치)
- 아이보리코스트=김영태(코치)
- 오스트리아=이경영(단장),
- 벨지움=이상훈(코치),
- 유고/이탈리아=박선재(단장),
- 호주=노계형(단장), 오영열(코치), 이춘봉(코디네이터).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해외에 체류하며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더러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 3개지역에서 코치로 참가했던 송상근, 김영태, 이경영 세 사람은 현재 세계연맹 사무차장으로서 세계태권도를 이끄는 행정가로서 근무하고 있다.

최초의 기념비적 사례

제2회 세계대회를 앞두고 국가원에 최초의 기념



김영태 코치
(아이보리코스트)



송상근 코치
(대만)

대회 이모저모

제2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외국팀을 이끌고 참가했던 김영태 코치(아이보리코스트), 송상근 코치(대만), 이경영코치(오스트리아) 등 3명은 공교롭게도 현재 모두 세계태권도 연맹의 사무차장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태권도의 국제행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젊어서는 온 세계에 퍼져 태권도를 널리 보급했고 그동안에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몸바치고 있는 많은 태권도인들이 존재함으로써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이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제2회 세계선수권대회에는 18개국에서 102명의 참관단과 국제스포츠계 VIP 17명 그리고 해외유공사범 21명 등이 참관했다.

비적인 팔각정이 세워졌다. 9평 5홉의 이 팔각정은 한국의 무도정신을 함양하고 특히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옛 정취에 젖도록하기 위해 세워진 것인데 진로 장의용사장이 기증했다. 현재 윤곡정이라 불리우는 이 팔각정은 김운용총재의 아호에서 연유되었다.

때를 맞추어 대회기간에 발간된 영문판 태권도교본은 불모의 문헌풍토에서 우리고유의 무예를 세계의 것으로 발전, 소개 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었

슬로서 일본의 가라테, 중국의 쿵후를 제치고 국제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조직화, 스포츠화, 세계화으로 향한 발돋움이라 하겠다. 그리고 동구권국가 유고와 첫방문 탐인 모로코, 이집트 등의 참가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한 것이다.

당시 KOC 명예 총무겸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운용회장의 초청으로 국제경기연맹 사무총장인 오스크 스테이트의 참관은 앞으로

조직화, 스포츠화, 세계화의 발판구축 동구권국가 유고참가등 외교적 성공

다. 게다가 최초로 태권도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 원안급이 몸통반대지르기의 모티브인 이 기념우표는 1종 20원 3백만장이 발행돼 우표수집상을 비롯해 국내의 태권도인에게 인기를 모으며 불티나게 뽐뽐 팔렸다.

공인스포츠에의 가능성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가 더욱 성숙된 국제스포츠로서의 우수성을 보여 줘 VIP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게 된 것이 큰 수확이었다. 한국 스포츠로서 60년사상 처음으로 국제경기연맹본부를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로서 이미 서울에 두게 되었다는 것이 태권도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는 동양무

태권도가 국제스포츠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경기문화의 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심판강습회를 개최했고 영문판 태권도교본 발간 등은 태권도내실에서 기여했고 국제스포츠인사 초청외교 등은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반면 대회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점, 경기규정에 대한 보완, 지역연맹 회원국간의 불협화음 조정, 국제규모로서의 질적향상 등은 세계태권도연맹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선수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팔다리 보호장비개발의 필요성 등 연구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차기 제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총회에서 미국(시카고)이 많은 경쟁국들을 물리치고 개최권을 획득했다.

세계 태권도연맹 소식

카이로 월드컵 태권도 22개국 248명 참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알리 스타디움(5,000석)
에서 3월 6일-8일, 22개국 148명 선수 참가.
-미국의 조사이아 헨스 부총제가 총재대행으로 참석,
세계연맹 이금홍사무총장, 세계연맹 대표 김영
태차장 등 참석

(한화로 납부시 현행 환율로 계산하거
나 세계연맹 국제심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매년초 연회비 납부하여 심판층 갱신 위해 여권
크기 사진 1매를 세계연맹에 보내기 바람.
-납부:은행수표 또는 세계연맹 구좌(외환은행 역
삼동지점 057-13-04125-6)로 송금하되 송금 사실을
세계연맹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기
바람.



태권도 가족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히 움직인다

-이집트서 가장 유명한 TV인 채널 2를 비롯해 이
집트 위성 채널, 나일 TV, 아랍 라디오 TV 등이
생방송과 중계방송으로 경기시간 내내 TV방송
-참가선수:남자-16개국 126명

여자-16개국 122명

-참가국:남자-호주,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이집
트,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한국, 레소토, 멕
시코,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미국
여자-호주, 캐나다, 대만, 크로아티아, 이집트,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레소토, 멕시코, 모로코, 러
시아, 스페인, 영국, 미국

-참가상:그리스, 레소토, 모로코

-감투상:호주,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심판 연회비 납부 심판층 갱신도 함께

-국제심판 연회비:P급 및 3급-미화 50달러
2급-미화 70달러
3급-미화 100달러

-심판복을 새로 맞추는 경우 세계연맹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신체크기를 적어넣게 되어있는 양식을
보내주며 비용은 미화 250달러, 납부방법은 연회비
와 같다.

-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세계연맹
에 통지하여 우편물 발송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기 바람.

지중해연맹 결성 추진 프랑스·이집트등 9개국

이집트 월드컵태권도대회 기간 중인 3월 7일 카
이로에서 9개 지중해권 국가협회임원들 14명이 모
임을 갖고 지중해태권도연맹 결성에 합의했다.

참가국은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이집트, 이
탈리아, 레바논, 모나코, 스페인, 터키이며 월드컵
대회 참가 중이던 조사이아 헨스 세계연맹부총재,
이금홍 세계연맹사무총장, 조한 친 세계연맹집행위
원도 참석.

이 모임에서 이탈리아가 97년 7월 8-15일 제1회

국가협회 소식

지중해 태권도컵대회를 로마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스페인이 99년에 2회대회를, 크로아티아가 2001년에 3회 대회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1회 로마대회때 지중해 태권도연맹 발기총회를 열고 지중해 게임(Mediterranean Games)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2년마다 지중해 태권도컵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박선채 이탈리아협회장이 지중해계 입태권도 정식종목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뽑혔으며 박위원장을 비롯해 참가국가협회 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97년 8월전까지 위원회 구성과 총회준비를 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연맹 아시아주니어대회 추진

아시아태권도연맹이 지난 96년 11월 아시아주니어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회 아시아주니어대회는 97년 7월이나 8월중 열릴 것으로 보이며 개최희망국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다. 아시아주니어대회에 대한 세계연맹의 승인을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캐나다협회 차기 세계대회 유치 희망

캐나다협회(회장 이태은) 민형근 부회장이 지난 2월말 세계연맹을 방문, 99년도 세계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

IOC, 2004년 올림픽 개최 최종 5개 도시 선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3월 6일 스위스 로잔에서 2004년 올림픽 유치를 신청한 11개 도시들 중 최종 5개 도시를 선발했다.

이들은 아테네(그리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아르헨티나), 케이프타운(남아프리카공화국), 로마(이탈리아), 스톡홀름(스웨덴)으로 2004년 28회 올림픽 최종 개최지는 9월 5일 로잔에서 열릴 106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다.

■ **이탈리아협회**가 2월 22일 총회에서 선거로 새 집행부 구성. 회장에 박선채, 사무총장에 안젤로 시토제선.

■ **그리스협회**(회장:아타나시오스 프라갈로스)는 97년 6월 21-22일 양일간 2회 발칸태권도대회를 개최할 예정.

■ **덴마크**:김 래호만 쇠렌슨이 96년 10월 26일 4년 임기의 유럽태권도연맹 심판위원장으로 선출.

■ **네덜란드**:서명수(9단) 사범이 96년 10월 26일 유럽태권도연맹 기술위원장에 재선.

■ **오스트리아협회**(회장:노베르트 모쉬)가 2월 21일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정회원으로 승인받았다. 협회는 또한 올림픽에 대비, 인스부르크와 비인 2곳에 국가대표선발선수용 전문훈련센터를 설립.

■ **파라과이협회**(회장:마리오 마르띠네즈 고또)는 라몬 주비자레파 국가올림픽위원장을 97년 5월 16-18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릴 제4회 남미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임명.

■ **유고슬라비아협회**는 96년 11월 1일 새 집행부 구성. 회장에 조란 안첼코비치, 사무총장에 라키 네보자.

■ **카자흐스탄**:4월 25-26일에 제1회 한국대사컵 태권도대회 개최.

■ **가봉협회**는 97년 3월 1일부터 집무 시작한 새 집행부를 발표. 회장에 바르텔레미 라탕가, 사무총장에 사뮤엘 응제.

새주소: B.P. 5807 Libreville, Gabon. 전화 24172 92 81, 팩스 241 74 60 47. 사무총장 전화, 팩스는 241 74 63 05.



두억시니

호로아 글·그림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란 말인가?〉

북면군사(軍師) 두억시니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할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육감(六感=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다섯가지 감각기관 말고 직감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영군(營軍) 10여명이 담배장수로 변장해서 연초포(煙草包=담뱃집) 속에 무기를 감추고 살짝 스며들어와 정봉준을 암살하려는 사실보다 전주감영이 극비에 부쳤을 이 암살음모를 삼돌이가 어떻게 해서 알아 낼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삼돌이가 이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 수수께끼를 빨리 풀지 못하면 전봉준장군 목숨이 자칫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

급박한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두억시니를 괴롭히고 있었다.

〈전주감영에 있는 삼돌이의 친구가 이 암살음모를 전해 왔다지만……. 쉽사리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감영에 잡입해 있는 진돗개로부터도 삼돌이와 그의 친구에 관한 보고는 단 한마디도 없었지 않은가〉

생각에 잠기면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턱을 쓰다듬는 것이 두억시니의 버릇이었다.

〈უნ확동 뒷산에서 내 뒤를 몰래 밟는 수상한 거동을 보인 삼돌이의 정체는…?〉

두억시니가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 모습에 전봉

준이 시름을 덜어주려는 듯 입을 열었다.

『군사 염려할 것 없소. 이미 수하(手下=부하)들에게 담배장수차림의 영군들을 검색하도록 지시는 내려 놓았으니 아무 탈 없을거요 그들은 모두 잡히고 말 것 이오』

살려 줄테니 돌아가시오

밖에 황금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동학군 한 사람이 군막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장군 전주의 감영에서 사람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 몇사람이나 되나』

『정석진이라는 군위(軍慰)와 그의 수하 3명입니다』

전봉준은 옆에 있는 두억시니와 시선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정군위만을 이리로 모셔오게』

전봉준은 비록 지금은 동학군의 적인 영군의 군위라해도 사명을 띄고 자신을 찾아왔다면 꺾듯이 예를 갖추어 맞이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

안내를 받아 군막에 들어선 정석진은 짹짹하긴 하나 다부진 몸매에 날카롭게 빛나는 눈을 가진 전봉준의 모습에 위압감을 느끼는 듯 주춤하는 눈치였다.

더구나 전봉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복면사나이의 차가운 시선은 상대방의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섬찟했다.

정석진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반란군의 괴수와 마주하고 있으니 일이 조금만 빠듯하는 날엔 자신의 몸은 낫이나 곡괭이로 난도질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전봉준이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 뜨리기라도 하려는 듯 먼저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전봉준이 이 말에 조금은 용기를 얻은 듯 정석진은 큰 기침을 한 번 하더니 그동안 몇 차례고 되풀이 하면서 외웠던 대로 전봉준과 동학군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대들은 위로는 이 나라의 상감을 받들고 자신들의 본분인 농사일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당(徒黨)을 짜서 무기를 휘두르며 고부관아까지 짓밟아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여기까지 늘어놓은 정석진은 갑자기 혀가 굳어진 것처럼 말을 잇지 못한다.

두억시니의 눈에 시퍼런 분노의 불꽃이 켜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두려움 탓에 완전히 주눅이든 정석진의 모습이 하도 딱했더니 전봉준은 쓴 웃음을 띄며 또다시 온화한 말투로 재촉했다.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그...그러니까 저어 이쯤에서 난동을 그치고 각자 지...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싸늘한 날씨에도 식은 땀이 비오듯 하는 정석진은 자신의 말투가 어느새 공대로 바뀌며 더듬고 있는 것도 몰랐다.

『그...그렇게만 하면...어...엄한 벌은 없을 것이오』

말을 마친 정석진은 한시 바빠 이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이 빠져 나가야만 담배장수로 변장한 영군들이 전봉준의 군막을 기습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터질 지경이었다.

전라감사 김문현이 정석진을 통해 보낸 「동학군을 즉각 해산하라」는 지시에 전봉준의 대답은 짧

지만 또렷했다.

『목숨만은 살려두네니 돌아가시오』

비로소 풀린 수수께끼

정석진이 군막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무슨일이냐 하고 정석진과 함께 군막 밖으로 나온 두억시니와 전봉준의 귀에 여기저기서 터지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뭐야? 이 녀석들은 담배장수로 변장한 관군(官軍)들이 아닌가!』

『그 연초포를 되져보아라. 수상한 녀석들이다.』

삼돌이의 정보에 따라 전봉준이 미리 지시한대로 경계망을 치고있던 동학군들은 연초포를 쏘어

러가고 있었다.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정규군의 엄정한 군율을 농민들로 갑자기 편성된 동학군에게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소리를 질러 수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엄청난 혼란 속에서 두억시니는 결정적인 위기가 전봉준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큰일났다. 이 혼란 속에서 전봉준장군의 군막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구나. 만약 영군의 또 다른 기습부대가 지금 쳐들어 온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두억시니가 서있는 군막 옆 큰 감나무에 화살 하나가 날아와 나무기둥에 탁 꽂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억시니는 그 화살을 뽑아 매어있던 종이를 펼쳐 보았다.

농민으로 변장한 군졸 10명이 진돗개가 보낸 밀서엔 「九」자가

진 담배장수들에 대한 일체 검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깁새를 눈치챈 정석진의 얼굴은 사색(死色 : 죽은상이 된 얼굴빛)이 됐다.

〈아뵤사. 담배장수로 변장한 자객들이 발각 됐구나.〉

정석진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면서 혼란 속에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었다.

연초포 속에서는 단검, 철추(鐵推 : 쇠몽둥이) 등의 무기가 나왔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담배장수로 변장한 영군들에게 날아가고 살을 찢기는 그들의 비명은 처참했다.

말목장터를 메우고 있던 동학군 전체가 술렁이며 담배장수로 변장한 감영의 군졸들에게 물려들고 있었다.

어느새 군막을 겹겹이 지키고 있어야 할 동학군들마저 호기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자리를 떠나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향해 앞을 다투어 달

『연초포에 무기를 감추고 담배장수로 변장한 군졸 16명이 전주감영을 떠나고 바로 그 뒤를 이어 농민으로 변장한 군졸 10명도 무기를 지니고 떠났습니다.』

편지 끝에는 아홉 구(九)자가 적혀 있었다. 구는 개를 뜻하는 구(狗)와 통한다. 전주감영에 잠입해 있는 진돗개가 보낸 전갈이다.

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거리에 진돗개가 와 있다는 이야기다.

〈알았다!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다〉

두억시니는 눈앞을 가리고 있던 짙은 안개가 짙건한듯 한 느낌이었다.

모진 피바람이 일다.

두억시니는 전봉준을 서둘러 군막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군막 한 가운데에 전봉준을 앉힌 두억시니는 미

리 준비해 두었던 굵은 통대나무를 뿔뿔하게 세워 엮은 병풍 같은 것을 전봉준의 사방에 둘렀다.

『장군. 꼼짝말고 이 안에만 계시면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두억시니의 움직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전봉준은 알아 들었다는 표시로 고개만 끄덕였다. 군막밖에 나와 둘러 보았더니 송두호의 집에서 거사를 모의했던 최경선(崔景善), 송주성(宋柱星), 이봉근(李鳳根) 등이 그래도 이 경황 속에서 군막가까이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도 최경선은 전봉준과 끝까지 뜻을 같이 했으며 황토현 황룡강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 다.

『여러분! 전장군의 군막을 지키고 계십시오. 동학군으로 변장한 또 다른 영군의 습격이 곧 있을 것입니다.』

두억시니는 당부의 말을 마치자 몸을 날려 군막 뒤쪽으로 달려갔다.

이미 동학군 차림을 한 영군의 자객(刺客 : 음모에 가담하거나 사주를 받아 사람을 몰래 암살하는 자) 한 사람이 칼을 쥐고 군막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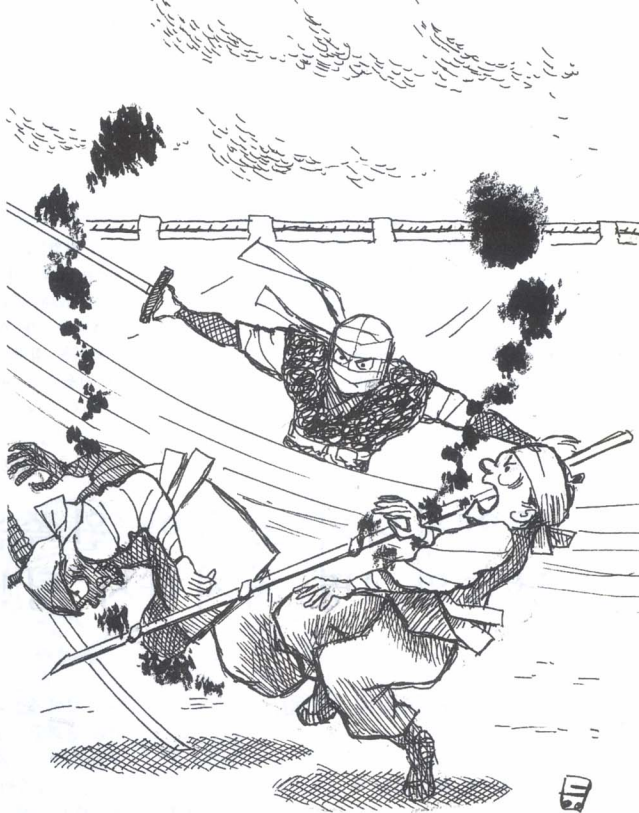
두억시니가 몇 발자국만 늦었더라도 그 사나이는 칼로 군막(軍幕 : 진중에 치는 장막)을 자르고 안으로 뛰어들어 전봉준의 목숨을 노렸을 것이다.

등에 진 칼을 번개처럼 뽑아 비스듬히 켜 두억시니는 자객 옆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으윽!』

짧막한 비명이었다.

거의 군막까지 당도했던 자객은 목의 동맥이 끊



겨 피를 흘리며 폭 고꾸라진다.

숨들리 새 없이 날카로운 죽창이 왼쪽으로부터 두억시니의 옆구리를 향해 꾸욱 뚫어왔다.

역시 동학군으로 변장한 영군의 자객이다.

머리카락 한올의 차이로 몸을 제쳐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 죽창은 두억시니의 갈비뼈 사이를 꿰어 영낙없이 그를 산적(散炙 : 쇠고기따위 길쭉하게 썰어 양념한 뒤 꼬챙이에 꿰어서 구운 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목표물을 헛쳐르고 힘이 남아 앞으로 발을 헛디더 나온 두번째 자객의 머리를 두억시니의 칼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빠졌다.

『.....』

슬그머니 죽창을 손에서 놓으면서 두번째 자객은 천천히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교활하고 음흉한 감사 녀석. 담배장수로 변장한 군졸들의 기습 정보를 일부러 흘려 우리가 그 쪽에 정신을 빼앗겨 혼란에 빠졌을 때를 틈타 동학군의 탈을 쓴 또 다른 기습부대로 전장군의 목숨을 앗으려 하다니……〉

진돗개의 급한 전갈이 아니었다라면 전라감사 김문현의 음모는 성공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두명을 쓰러뜨리고 사방을 살피니 정면으로부터 3명,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2명씩 모두 7명의 자객이 두억시니를 향해 덤벼들어 오고 있었다.

전봉준의 설득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긴 했으나 손화중은 고부봉기에는 가담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뜻을 밝혔다.

『전 집주, 이번 거사에 나는 빠지겠소, 우리 교주(동학2대 교주 최시형 : 崔時亨)의 가르치심인 비폭력주의를 거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고부관아를 함락 시킨다 하더라도 전라감영의 영군과 서울에서 내려보낼 경군(京軍) 등 관군(官軍)을 맞아 싸워서 승산이 없소, 지금은 일어날 때가 아니오』

손화중과 전봉준은 날이 새도록 지금 들고 일어

두억시니의 표창이 왼쪽눈 깊숙히... 단숨의 4명 처치하자 탕! 총소리가

나머지 두 마리의 용(龍)

말목장터의 임시 군막에서 전봉준이 자객들에 의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동학의 손꼽히는 실력자 손화중(孫化中)과 김개남(金開南)은 각각 자신의 본거지에서 전봉준의 주도로 이루어진 고부봉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키가 무척 큰데다 부드러운 인상을 지니고 설득력이 뛰어난 손화중은 무장 고장 무안일대에서 조직을 넓힌 동학의 거목이다.

뒷날 일본군이 동학의 세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름난 집주들은 정당한 보고에 「무장(戊長)에는 손화중이라는 대접주 거괴(巨魁 : 거물인 괴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만 보아도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짐작이 갈만하다.

일찍부터 손화중의 조직과 세력을 주목했던 전봉준은 고부봉기를 앞두고 1893년 11월 눈이 유별나게 많이 내리던 날 밤 정읍 과교리에 살고 있던 손화중의 집을 은밀히 방문해 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것이 옳으나 아니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끝내 손화중은 1차 기포(起包 : 동학조직인 포의 무장봉기)인 고부봉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동학란(갑오농민전쟁)의 3거두로 온건파인 손화중, 중도파인 전봉준, 그리고 강경파인 김개남을 꼽는다.

태인의 동학접주로 성격이 팔팔해 각종 모임 때마다 강경주장으로 회의를 주도했던 김개남도 전봉준의 고부봉기는 지켜보고만 있었다.

2차 기포때 이 3거두는 힘을 모아 전주를 함락시켜 조정을 와들와들 떨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세력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청일(淸日)전쟁이라는 폭탄에 불을 당기게 된다.

뒷날 동학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봉준이 주도한 고부의 1차 봉기를 조직적인 동학의 기포로 보지않고 조선말기에 줄을 이었던 민란(民亂)의 하나로만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비록 전봉준이 동학의 집주였다고는 하나 고부의 1차봉기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동학군은 별로 많지 않았고 일반농민들이 많았음을 뒷날 전봉준 자신도 시인하고는 있다.

하지만 고부의 1차봉기가 그 뒤 동학이 본격적으로 주도한 황토현(黃土現) 전투, 공주(公州)전투의 기폭제가 된 점을 감안할 때 고부의 1차봉기도 단순한 민란으로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시 동학의 영향이 크게 미쳤던 종교전쟁형태 농민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진돗개의 눈부신 활약



7명의 자객이 자신을 향해 덤벼들어 오는 것을 본 두역시니는 왼손에 칼을 움켜쥐고 오른손은 품에 넣어 표창하나를 끄집어 냈다.

몸을 낮춘 두역시니는 왼쪽으로부터 달려든 자객의 다리를 칼로 올려쳤다.

『으악!』

한쪽다리를 무릎 아래로부터 잃은 자객은 몸의 균형을 잃고 털썩 쓰러진다.

그 사이 두역시니의 오른손으로부터 날아간 표창은 정면으로 달려오고 있던 3명의 자객 중 맨 가운데 사나이의 왼쪽눈에 깊숙히 꽂혔다.

『으으으.....』

눈으로부터 너까지 꽃힌 표창은 그 사나이의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

〈나머지 한명은 어디 숨어서 아직 안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피바람 소용돌이 속에서도 두역시니의 머리는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진돗개의 전갈에 따르면 동학군으로 변장한 자객은 10명이다. 두역시니의 눈앞에 나타난 9명 가운데 4명은 쓰러뜨렸고, 5명이 남았으나 처음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마지막 한명이 아래로 깨름직하다.

단숨에 4명의 목숨을 앗아버린 두역시니의 피투성이 모습은 마치 피에 굶주린 귀신같았다.

『이야얏!』

혼자씩 덤벼서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는지 앞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 한

명씩 한꺼번에 두명이 축창으로 두역시니의 몸통을 찔렀다. 아니 찌르려 했다.

날카롭게 베어진 축창 끝은 그러나 허공을 찔렀을 뿐이다.

어느새 공중에 몸을 솟구친 두역시니는 사뿐히 내려서면서 오른쪽 자객을 어깨로부터 비스듬히

아래로 배었다.

다음 순간 두억시니는 마치 물이 흐르듯 다음 칼로 앞에서 공격해왔던 자객의 목을 가로 갈랐다.

이때쯤에는 사태가 심상치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눈치챈 동학군들이 나머지 자객들을 둘러 썼으나 너무나도 눈부신 두억시니의 무예에 넋을 빼앗긴 듯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타앙!』

총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이때다.

『저놈이다!』

총소리는 그동안 두억시니가 그토록 찾아내려고 기를 썼던 마지막 자객 한명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말목장터의 큰 감나무 이름을 따서 「감나무집」이라 불리우는 주막집 그늘에서 다시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자객의 모습이 오른쪽의 자객을 향해 몸을 돌리는 두억시니의 시야 한구석에 들어왔다.

〈진돗개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저녁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었구나〉

두억시니의 생각은 옳았다.

총에 탄약을 재장전한 자객이 또다시 전봉준의 군막을 겨냥했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나이가 손살 같이 달려들며 단검을 그 자객 옆구리에 꽂았다.

조금 전 화살로 급한 전갈을 두억시니에게 알린 진돗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사태가 이쯤되자 나머지 3명의 자객들은 전의(戰意=싸울 뜻)를 잃어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그들이 도망갈 길은 뻔 뻔히 들어찬 동학군으로 꽉 막혀 있었다.

전의를 상실한 전사(戰士)의 최후처럼 비참한 것도 없다.

별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3명의 자객은 분노에 찬 수 많은 죽창이 온 몸에 꽂히는 바람에 고슴도치 몸굴이 되면서 숨이 끊어졌다.

〈왜 감사 김문현이 보내준다면 100명의 포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영장 김시풍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동학군의 진영을 정신없이 빠져 나가면서 군위 정석진은 자신들에게 몰래 팔려보내 주겠다고 100

명의 포수가 나타나 발포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다. 감사는 애당초부터 포수 100명은 몰래 팔려보낼 생각도 없었고 담배장수로 변장한 군조들에게 상금 500냥을 줄 마음도 없었던거야. 그저 우리들을 사지(死地=살아 남을 길이 없는 매우 위험한 곳)에 보내려는 사탕발림이었을 뿐이야. 우리를 제물삼아 동학군으로 변장한 자객들로 하여금 전봉준을 죽이려 했던거야. 나쁜놈 같으니라구……〉

『옥!』

비로소 김문현의 검은 속셈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린 정석진의 옆구리에 죽창이 꽂혔다.

군위 정석전도 이렇게 죽었다.

삼돌이를 찾아내라!

물 썰 틈 없는 삼엄한 경비가 빚어내는 팽팽한 긴장감이 동학군의 군영을 뒤덮고 있었다.

담배장수로 위장한 군졸들을 내세우는 양동작전(陽動作戰=본디의 목적과는 다른 움직임을 일부러 들어 댄으로써 적의 주의를 그쪽으로 끌리게 하여 정세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작전)을 펼쳐 동학군을 속인 뒤 또다른 기습부대로 하여금 전봉준을 암살하려던 전라감사 김문현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동학군은 경계를 바짝 강화했다.

두억시니의 명령에 따라 동학군들은 삼돌이를 찾아 내려고 사방을 살살이 뒤졌다. 그러나 어느곳에도 삼돌이는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아까 그 난리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삼돌이는 이 근처에 있었는 데……?』

『글쎄 말이야.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 삼돌이는 갑자기 사라지고 군사는 삼돌이를 찾아내라니……』

『아무래도 무엇인가 곡절이 있는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삼돌이가 보이지 않을 까닭이 없지』

동학군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지껄이면서 심지어

군영 가까이 민가까지 뒤흔쳐 보았으나 삼돌이의 모습은 찾아낼 수는 없었다.

〈생각했던 대로야. 삼돌이는 전주감영의 간자(間者=간첩)임에 틀림없어. 감영으로부터 담배장수로 변장한 영군이 침투해들어갈 것을 전장군에게 알리라는 비밀지령을 받아 그대로 전한거야. 그리고 동학군으로 변장한 자객들의 전장군 암살이 실패하자 출행량을 놓은거야.〉

두억시니는 그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전봉준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삼돌이가 밤을 틈타 잠든 전봉준의 목을 땔을 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밧던 부하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삼돌이가 전라감사 김문현의 앞잡이였다는 두억시니의 보고에 전봉준도 한동안 말문이 막히는 모양이었다.

『이럴수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만에 내뱉었다.

마지막 자객이 쏜 총으로부터 전봉준을 지켜준 것은 군막을 나서기전 두억시니가 둘러친 통대나무 병풍이었다.

군막을 뚫고 들어온 총알은 통대나무에 맞아 빗나가 버렸다.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대나무 발에 몸을 숨기면 안전한 것은 총알이 대나무에 맞아 미끄러져 코스가 바뀌기 때문이다.

김문현의 전봉준 암살음모는 두억시니의 과감한 결단과 재빠르고 눈부신 활약이 없었더라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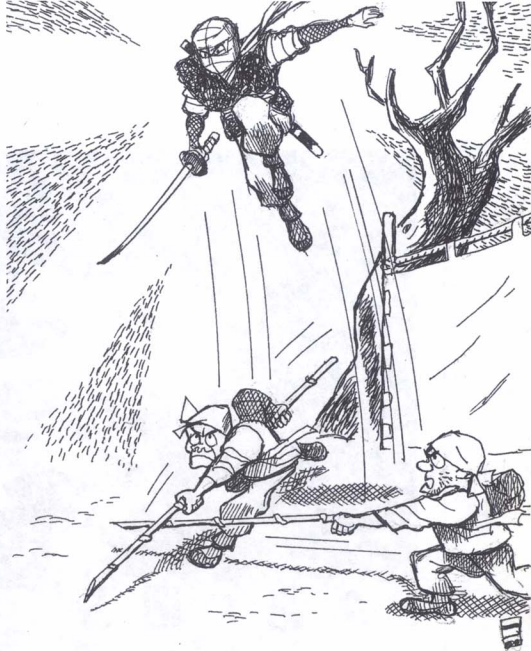
『군사(軍師)가 내 목숨을 건졌거려』

전봉준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고마움을 두억시니에게 나타냈다.

『아닙니다. 장군의 치하를 받을 일이 결코 못됩니다.』

두억시니는 복면 사이로 들어낸 두눈에 어두운 표정을 띄며 고개를 살래살래 가로 흔들었다.

『자칫했으면 장군의 목숨을 지켜드리지 못할뻔



했지 않습니까』

『허허. 군사가 최선을 다했지 않소. 나는 이 일을 꾸밈을 때부터 이미 목숨은 내놓았소. 언제 죽든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너무 심려하지 마시오. 전봉준의 인정어린 위로에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도 두억시니의 마음은 암울했다.

〈앞으로도 서울의 조정(朝廷)과 전주감영은 계속 전장군의 목숨을 노릴터인데……〉

훈련이라고는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군율(軍律)도 올바르게 잡혀 있지 않은 동학군을 이끌고 정면으로는 관군(官軍)과 싸우고 뒤쪽으로는 끊임없이 그들이 보내온 자객들과 대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두억시니의 양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때쯤 서울의 조정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김문현이 장계(狀啓=감사가 중앙에 글로서 올리는 보고)도 중앙에 보고하기전 이미 고부봉기는 소문으로 온 서울 안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조정은 사태수습을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렸다.

〈다음호에〉

모두 1,610명 참가, 기량 뽐내
'97 종별선수권대회

중등부

여자부

일반부



▲남중부 예선에서 정명원(구월중)의 원발공격이 강석환(예산중)의 얼굴에 터지고 있다.

'97 종별선수권대회 중등부, 여자부, 일반부 경기
(3월 11~14일 올림픽체조경기장)는 중등부 1,196명,
일반부 103명, 여자부 301명 모두 1,610명이 참가함으로써
참가선수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기량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한 대회였다.

눈에먼 경기력 향상

중 등 부

핀급 174명, 플라이급 197명, 밴딩급 175명, 페더급 168명, 라이트급 132명, 라이트 웰터급 103명, 웰터급 83명, 라이트 미들급 62명, 미들급 33명, 라이트 헤비급 37명, 헤비급 32명 모두 1,196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참가인원의 증가와 함께 경기력의 향상도 눈에 띄는 대목.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으로 각급 학교에서 태권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인원수와 기량이 향상됐다는 중평이다.

지난해보다 120여명 늘어

여 자 부

모두 301명이 참가했다.

협회는 여자 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6년부터 치러왔던 여자개인선수권대회를 올해부터 중별대회에 여자부를 신설해서 흡수했다. 여자부 활성화와 방안으로 전국체전 여중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별대회에 참가하는 여자선수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아졌고 더불어 부쩍 향상된 기량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 300여명의 참가는 96년 여자개인선수권대회 참가자보다 약 12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서 89년 267명 참가 이후 가장 많다.

총103명이 95게임 치루

일 반 부

모두 103명이 참가해서 95게임으로 치러졌다.

참가선수는 96년 74명에서 30명가량이 늘어났다. 태권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부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중등부전적

핀급	결 승 최균규(이수중) 4:3 장원상(부천동중) 준결승 최균규 5:4 남현우(일동중) 장원상 6:5 김신정(남주중)
플라이급	결 승 고성범(구월중) 6:2 허인영(성남서중) 준결승 고성범 10:7 이기정(영남중) 허인영 3:3 감점패 김찬화(오금중)
밴딩급	결 승 김정근(한성중) 3:1 조학래(신암중) 준결승 김정근 10:3 문환철(오금중) 조학래 11:6 문판철(오금중)
페더급	결 승 정국환(육선중) 13:10 김호성(경수중) 준결승 정국환 5:4 심명식(전동중) 김호성 8:1 유동석(봉리중)
라이트웰터급	결 승 이재현(일동중) 5:3 주현(부천동중) 준결승 이재현 6:4 이정진(덕산중) 주현 13:5 윤기택(덕원중)
라이트미들급	결 승 임지광(배명중) 5:2 이승운(제주 중앙중) 준결승 *임지광 6:6 류준수(대성중) 이승운 3:2 이우영(문성중)
웰터급	결 승 장용훈(한성중) 11:3 강용길(오성중) 준결승 장용훈 7:3 주정근(대동중) *강용길 우세 3:3 손준길 (구운중)
라이트미들급	결 승 백주열(배명중) 7:6 김상윤(덕원중) 준결승 백주열 6:4 정영호(칠곡중) 김상윤 8:7 구철영(당곡중)
미들급	결 승 허도식(웅동중) 8:6 민범식(배명중) 준결승 허도식 6:5 박효상(오금중) 민범식 3:2 김진욱(성남서중)
라이트헤비급	결 승 박인철(구월중) 8:6 김호중(반여중) 준결승 박인철 5:3 정진형(곡산중) 김호중 5:0 오재광(서귀중)
헤비급	결 승 김종철(강화중) 8:1 박성복(일동중) 준결승 김종철 5:3 김태웅(신암중) 박성복 7:6 김유환(대성중)

여자부전적

결승	최준정(경성여시고) 7:1 김해정(계산여고)
준결승	최준정 2:0 문지영(경성여시고) 김해정 4:2 김소영(인천정보산고)
결승	최유리(송곡여고) 9:6 최미애(고령여중고)
준결승	최유리 6:5 이세미(관악정보산고) 최미애 1:0 손정미(토현체육관)
결승	김태정(송곡여고) 7:1 김희정(문성여상)
준결승	김태정 8:4 백은주(관악정보산고) 김희정 5:4 남태경(문상중고)
결승	김정은(목포상고) 6:1 차세영(강화여중고)
준결승	김정은 5:3 황희영(권선고) 차세영 11:2 이슬비(강원체고)
결승	류춘희(고창여고) 15:14 박미향(배성여상)
준결승	*류춘희 9:9 손미연(일동중고) 박미향 7:2 김유라(군산중앙여고)
결승	이선영(강원체고) 5:4 이선미(은광여고)
준결승	이선영 8:5 한아름(일동중고) 이선미 7:3 정효진(신갈고)
결승	*박선화(고창여고) 10:10 장성연(경성여시고)
준결승	박선화 16:4 이숙진(배성여상고) 장성연 10:4 송하도(김제부고)
결승	한현아(경성여시고) 7:2 김순주(충남체고)
준결승	한현아 7:3 정은영(일동중고) 김순주 7:2 강미정(배성여상)

일반부전적

결승	*박용래(충남전문대) 5:5 석수형(체육신학교)
준결승	박용래 10:3 인산고(충춘체육관) 석수형 4:2 유희성(대전실전)
결승	박용일(충남전문대) 3:1 이관주(충춘체육관)
결승	허영배(서귀포시청) 6:4 신희중(인화체육관)
준결승	허영배 2:0 현종민(금강체육관) 신희중 1:0 김성진(경원전문대)
결승	신유석(석사체육관) 상대실격
준결승	*신유석 3:3 빈운근(청도체육관)
결승	한영용(영천시청) 3:2 윤상용(경원전문대)
준결승	한영용 14:9 장원석(경원전문대) 윤상용 기권승 이재성(고양중고OB)
결승	정정렬(중부대) 기권승 서광철(영광체육관)
준결승	정정렬 2:0 박상권(천안시협회) 서광철 8:3 김영도(대전실전)
결승	송기석(경원전문대) 7:4 남경인(체육신학교)
준결승	송기석 7:3 유주환(일산체육관) 남경인 7:5 배용호(충남전문대)
결승	최완식(한국체육관) 6:2 함중수(대전실전)
준결승	최완식 5:3 장대일(전북협회) 함중수 4:0 이호상(금산비룡도장)

★ : 라운드 우세승

* : 우세승

태권도 산책



홍 중 수
원로 태권도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국기원 부원장
전 대한 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

조선시대의 사상이 가운데 퇴계 이황(李滉)은 『유교적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했고 율곡 이이(李珥)는 「군주정치는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했던 위대한 학자들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특별히 정해진 스승없이 거의 홀로 공부해서 뒷날 역사에 길이 남은 인물로 성장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황은 1501년 경북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에서 태어났다. 이황은 출생한지 일곱달만에 아버지를 여우고 편모 슬하에서 자랐다.

아버지도, 이렇다 할 스승도 없이 홀로 공부하며 성장한 이황은 「신하는 임금을 아버지처럼

사랑해야 하고 임금은 하늘을 아버지처럼 모셔야 한다」는 유교정신이 투철한 학자가 된다.

34살에 문과에 급제한 이황은 그 실력을 인정받아 사간원(司諫院=임금의 잘못을 간



▲이황은 자신에게 엄하고 남에게 관대했으며 청빈하게 산 위인이다.

(諫)하는 일 맡아보는 관아), 사헌부(司憲府=정사를 비판하고 벼슬아치의 잘못을 가려내어 백성의 억울함을 다스리던 관청), 홍문관(弘文官=중요문서와 서적의 관리 및 처리를 맡고 왕의 질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의 관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홍년이 든 충청도 지방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는 어사직을 맡은 일도 있다.

명종이 즉위한 뒤 나랏일이 문란해지면서 이황 등 올바른 관료를 몰아내자 그 뒤 벼슬이 내려졌어도 병을 핑계삼아 이내 물러나곤 했다.

이황이 50살 되던 해에는 「이황을 당시 유림(儒林=공자의 학설을 신봉하고 연구하는 학자의 사회)의 종사(宗師=으뜸되는 개척자)가 되었다」고 「명종실록」에 기록될 만큼 그의 학문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학문을 인정받은 이황은 후학들을 교육하는 일에 남은 정열을 불태웠다.

이황은 일반적으로 영남학파(嶺南學派)의 대표로 꼽혔지만 기호학파(畿湖學派)로 분류되는 이이도 이황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학문을 더욱 발전 시켰다. 이이는 1536년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여류시인이며 화가로 이름난 신사임당(申師任堂)이다.

이이는 글씨주가 뛰어나 중국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졌고 과거시험에도 수석으로 합격했다. 대사헌, 대제학, 호조, 형조, 이조, 영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청주목사, 황해감사와 같은 외직(조정을 떠난 벼슬)도 맡았으나 주로 내직(조정 안의 벼슬)을 맡으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군주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이이는 23살 되던 해 예안에 있던 58살의 이황을 찾아가다. 이이와 이야기를 나누어본 이황은 그의 뛰어난 학식에 놀라며 「후생가외」(厚生可畏=젊은이란 장차 얼마나 큰 역량을 나타낼지 헤아리기 어려우니 존중히 다룰 일이다)라고 극찬했다.

이때 밤낮 이틀동안 이황의 강론을 들은 이이는 그 뒤 철이 바뀔때마다 문안 편지를 이황에게 보내는 예(禮)를 다했다.

어렸을때부터 어머니 신사임당의 교육이, 그리고 학문에서 배운바를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이이로 하여금 예를 갖추게 만든 것이다.

얼마나 모범이 되는 일인가.

태권도는 예로 시작되고 예로 끝난다. 겨루기, 수련에 앞서 서로 상대방에게 경례하고 끝난 뒤 또한 경례로 매듭짓는 것은 바로 태권도의 바람직한 무도로서의 측면이다.

예의 기본은 사랑의 정신이다. 먼저 자애(自愛) 자기자신을 사랑)하고, 둘째 타애(他愛=다른사람을 사랑)하며 셋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의 바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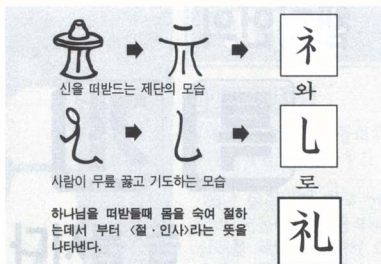
예의(禮意)는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율곡 이이의 예(禮)를 배우자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덕목

따라서 동물과 인간의 구별은 예가 있고 없음에서 가려지기도 한다. 예의도 염치도 없는 사람을 놓고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까닭이다. 예의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도덕이 없어진다. 제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가 있어도 예의가 없고 도덕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 막강하던 로마제국이 멸망한 것은 예의가 없고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예의나 염치를 저버리고 향락, 방탕, 과도한 사치에 빠진 로마제국은 끝내 부패를 거쳐 종말에 이르고 말았다. 예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서 생각(思)을 바로하고, 사물을 바로 보고(視), 이야기를 바로 듣고(聽), 올바른 말(言)을 하며 행동(動)을 바로 갖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태권도협회가 1972년 5월에 태권도인의 예의 규범을 제정해서 널리 선포한 것도 무릇 태권도인은 예를 갖춘 무인(武人)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다.



기원전 7세기 쯤 중국, 지금의 산둥성(山東省)에 있었던 제나라의 제상을 지낸 관중(管仲)의 언행록인 「관자」(管子)의 목민(牧民)편에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衣食)이 충족되어야 영욕(榮辱=영예와 치욕)을 안다」는 격언이 있다.

곡물을 넣는 창고가 가득차야 사람은 예의가 무엇인지 알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영예와 치욕을 가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릇 일반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절의 기본이나 영욕의 기호는 물질적인 생활이라는 것이다.

의식주(衣食住) 문제를 제대로 해결못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절이나 영욕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먼저 생활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관중은 주장했다.

관중의 주장은 일반론으로서는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살림이 어렵더라도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바라는 사람들은 결코 예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옛성인의 『사람이 예가 있으면 편안하고 예가 없으면 위태롭다』는 말씀은 거의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 영화(榮華)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가치가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의 태권도인들은 국조(國祖) 단군의 「敬天愛人 弘益人間」(하나님을 숭앙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 도와 널리 이롭게 하자) 정신을 살리며 예를 갖추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다.

챔피언의

특기

좀 봅시다



▲ 정국현씨

「앞발 내려차기」와 「나래차기」

이번호에는 3회에 걸쳐 연재되는 세계선수권 4연패를 이룬 정국현의 특기 마지막회로 「앞발 내려차기」와 「나래차기」의 두가지 기술이 소개된다.

앞발 내려차기는 상대와 근접한 거리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로 정국현 감독의 경우 국제대회에서 이 기술로 상대선수를 다운 시킨 적이 많았다고 한다. 또 나래차기는 양쪽 다리로 번갈아 공격하는 모양새로 인해 '날개차기'로 불리기도 한다.

도움말 한마디

태권도는 근력도 근력이지만 유연성이 뛰어나야만 공격과 수비의 기술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종목이다.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 모든 체력요소가 그렇지만 평소엔 꾸준히 트레이닝으로 갈고 닦아놓지 않으면 무더지게 마련이다.

유연성이 모자랄 경우 관절의 가동범위가 좁아

유연성을 키워놓지 않으면 훈련이나 겨루기에서 손목, 팔꿈치, 무릎, 어깨, 목, 장딴지 등에 염좌, 근육파열 등의 부상을 입기가 쉽다.

부상의 예방을 위해서도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에 의한 유연성 키우기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훈련이나 겨루기에 앞서 준비운동으로서

유연성 키우기에 늘 힘써야

저 체대로 다리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동작이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게 마련이다. 태권도 선수들은 등, 허리, 다리, 팔 등의 유연성이 뛰어나야만 겨루기에서 다채로운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격파에서도 위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겠다.

또 훈련이나 경기를 마치고 난 뒤 정리운동으로서 스트레칭을 꼭 해야만한다.

유연성 키우기는 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운동임으로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도록 힘쓰기 바란다.



기술 1

앞발 내려차기

상대가 뒷발 몸통 돌려차기로 공격을 해올 때 받아차기 동작.

'88년 올림픽때 미국 선수를 맞아 저돌적으로 공격해오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했다. 근접한 거리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가락을 해서 다운을 뺀 기술이다.

① 단힘새 자세로

② 앞발을 위로 약간 끌면서

무릎을 굽혀 올려 다리를 편다.
무릎을 굽혀 올릴때는 공격방
향쪽으로 똑바로 올려야 한다.

몸의 중심은 수직이동하고
두손은 자연스레 늘어 뜨린
다.



③ 올려서 편다리를 내리면서

찍듯이 얼굴부위를 정확히 가
격한다. 그래서 이 기술은 통
칭 「찍기」라고도 불리운다.



챔피언의 특기

기술 2



① 닫힘새 자세로

받아치기 위해서는 우선 자세를 닫힘새 자세로 잡아야한다.

② 백 스텝으로

상대의 공격을 보고 동시에 물러짓기 (백 스텝)를 한다.



좀 봅시다

나래차기

상대가 뒷발 끌어 앞발 돌려차기 공격을 할 때 받아차기 하는 기술



③ 짧게 돌려차기

몸의 중심은 공격방향으로 약간 이동하면서 뒷발을 굽혀올려 짧게 돌려차기 한다.

윗몸을 젖혀서는 안된다. 상대가 다가올때 동시에 물러 짓기를 한 다음 공격방향쪽으로 신속하게 중심을 이동해서 차기를 실시한다.

④ 반대발로 뛰어

차는발을 끌어내리면서 반대발로 뛰어 돌려차기 한다.



지도 : 박 영 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게임 2위
하이아트 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국기원 심사위원)

다이나믹한 발차기를 위한 다리근육 강화

흔히 우리는 다리근육이라고 부르지만 다리의 근육도 대퇴사두근(허벅지앞), 대퇴이두근(허벅지뒤), 하퇴삼두근(장딴지), 그리고 허벅지와 오몸을 연결시키고 있는 대둔근, 등둔근 등 여러가지가 있다.

태권도선수가 겨루기나 격파에서 다이나믹한 차기를 나타내려면 이러한 많은 근육을 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교실에서는 가급적이면 간단한 기구인 덤벨(아령), 바벨(역기), 그리고 의자 등을 이용해 손쉽게 실시 할 수 있는 운동방법을 소개하겠다. 그러나 특수한 운동기구의 이용이 효과가 큰 운동은 헬스클럽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다.

도움말 한마디

트레이닝 목적에 따라 중량과 반복회수는 달라

트레이닝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무게, 그리고 운동의 반복회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서 무게나 저항을 딱 한 번 들어올리거나 밀거나 혹은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을 최대근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최대근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힘이 강한사람의 최대근력은 크고 힘이 약한 사람의 최대근력은 작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최대근력도 웨이트트레이닝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보통 힘만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력의 85~90%에 해당하는 무게나 저항을 사용한다. 그러면 최대근력의 85~90%에 해당하는 무게나 저항을 어떻게 저울질 하느냐 라는 질문이 당연

히 나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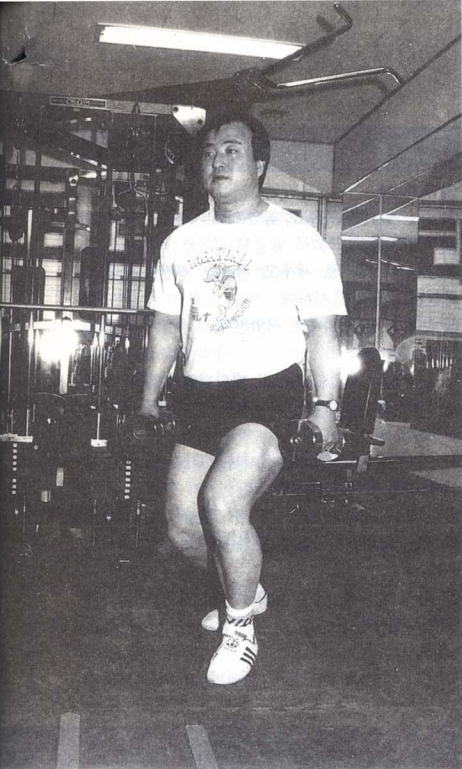
한차례 운동에서, 그러니까 휴식하지 않고 3~4차례 실시 할수 있는 무게나 저항이면 최대근력의 85~90%로 보인된다. 따라서 이만한 무게나 저항을 이용해 3~4번씩 운동하면 힘은 커진다.

근육의 힘 뿐만 아니라 근육의 크기(굵기)를 함께 발달시키려면 최대근력의 75~85%의 무게나 저항으로 한차례 운동에서 6~10번 정도 반복하면 된다.

근육의 지구력이나 심폐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서킷 트레이닝 혹은 슈퍼서킷 트레이닝에서는 최대근력의 50~70%의 무게나 저항을 이용해서 12~25번 가량 되풀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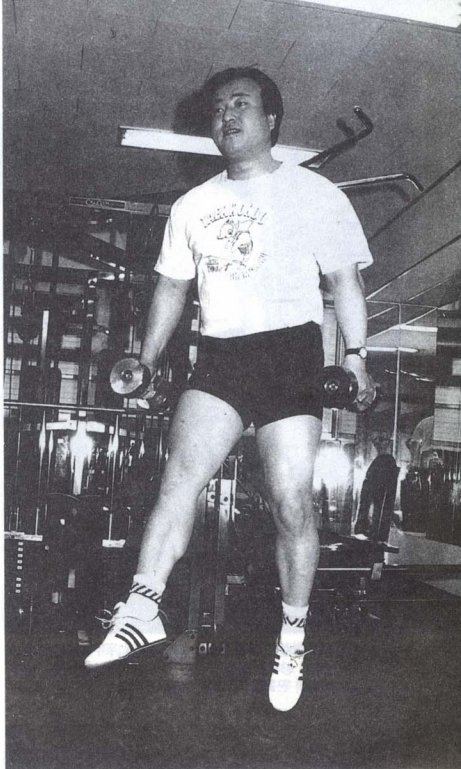
서킷 트레이닝과 슈퍼서킷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겠다.

<박영철>



■ 덤벨 스프릿 점프 1

두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렸다가 두발로 바닥을 차면서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이때 상체는 똑바로 세워 있어야 한다.



■ 덤벨스프릿 점프 2

공중에서 두발의 위치를 바꾼 뒤 착지한다. 착지할때에는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사뿐히 내려서야 한다.

덤벨 스프릿 점프

〈준비자세〉

- ① 아령을 두손에 쥐어 넓적다리 옆에 대고 두발을 약 50cm 정도 벌린다.
- ② 가슴을 펴고 등을 똑바로 세운다.
- ③ 시선은 앞을 보고 땅을 쳐다보지 않도록 한다.

〈동작〉

- ① 양쪽 무릎을 약 90° 정도 구부렸다가 두발로 지면을 차면서 공중으로 몸을 솟구친다.
- ② 지면에 두 양발이 닿기 전에 두발의 위치를 바꾸어 착지하는 동작을 교대로 실시한다.

〈호흡〉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점프한 다음 내쉬면서 지면에 착지한다.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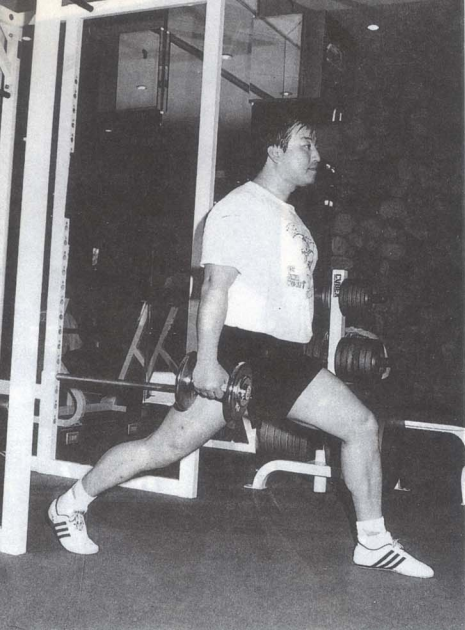
- ① 시선을 항상 정면을 응시한다.
- ② 상체를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 가슴을 편채 동작을 한다.
- ③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 덤벨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도록 한다.

〈발달근육〉

대퇴사두, 대퇴이두, 대둔근, 비장근(하피삼두)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점프력, 이단 앞차기, 이단 옆차기, 빠른 동작의 발놀림



▲ 한쪽발을 한걸음 크게 앞으로 내디디면서 두무릎을 천천히 90도각 구부려 상체를 아래로 낮춘다. 이 동작은 대퇴사두근을 비롯 다리의 여러 근육을 자극해서 발달시킨다.

덤벨 런지

<준비자세>

- ① 두손에 아령을 쥐고 몸옆으로 자연스럽게 두팔을 내려뜨린다.
- ②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시선을 정면이나 혹은 약간 아래쪽을 응시한다.
- ③ 두발을 붙인 자세로 서있다.

<동작>

- ① 한쪽발을 한걸음 앞으로 내디디면서 양쪽 무릎을 90°정도 구부리면서 상체를 수직으로 천천히 낮춘다.
- ② 이때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가슴을 펴 상체가 똑바로 유지되게 한다.
- ③ 앞으로 내디딘 발을 지면을 밀면서 다시 뒤쪽에 있는 발에 가지런히 갖다대면서 다시 위치로 온다.
- ④ 다시 반대쪽 발을 앞으로 한발자욱 내디디며 교대로 실시한다.

<호흡>

똑바로 선 자세에서 숨을 들어마시며 한쪽다리를



▲ 화려한 발기술은 태권도의 꽃이다. 다른 종목의 무도인들이 부러움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발기술은 갈고 닦아서 이루어진 노력의 열매다.



▲이호열

도움말 한마디

유연성운동 생활화 하도록 부드러워야 움직임 좋아져

모든 스포츠선수는 순발력, 지구력, 유연성을 갖추고 여기에 기술연마를 보태야만 크게 자랄 수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순발력으로 대표되는 근육의 힘을 키워준다.

태권도의 경우 같은 동작의 공격이라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이 강화된 선수의 공격이 상대 방에게 보다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 아무리 순발력이 빼어났다 해도 3분 3라운드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지구력(스태미니)이 없으면 설사 초반에 리드를 잡고 있다가도 지구력이 있는 상대에게 밀려 역전패

앞으로 내딛고, 내쉬면서 내딛은 다리를 밀면서 원 위치로 돌아온다.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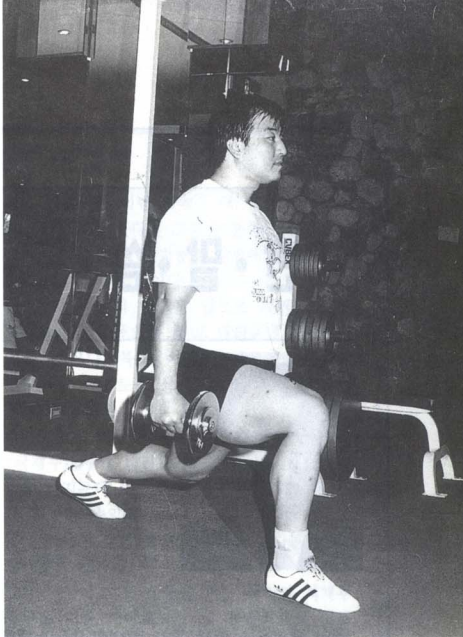
- ① 뒤쪽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 ② 초보자의 경우는 무릎을 무리하게 많이 구부리지 말고 천천히 발전시켜 나간다.
- ③ 무릎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내딛을 다리의 무릎이 발끝위치보다 더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두발의 간격을 조정하거나 무릎을 90° 정도보다 덜 구부리도록 한다.
- ④ 어느 정도 숙달이 될 때까지는 두다리를 교대로 바꾸면서 실시하고, 집중적인 근육발달이나 하드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한쪽다리로 계속 실시하고 난 다음 다시 다리위치를 교대하여 실시한다.

〈발달되는 근육〉

: 대퇴사두, 대퇴이두, 대둔근, 중둔근, 비장근, 비목근(하퇴상두)

〈발달 시킬 수 있는 동작〉

- ① 한쪽발이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력의 강화
- ② 발차기의 안정성
- ③ 균형감각 증진



▲ 발을 바꾸어 똑같은 동작을 되풀이한다. 무릎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내딛은 다리의 무릎이 발끝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쓰고 무리하게 무릎을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당하기 일쑤다. 지구력은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으로 키워진다. 태릉선수촌에 들어가기 있는 선수들이 아침에 달리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순발력, 지구력도 중요하지만 유연성도 매우 중요하다.

유연성이란 한마디로 관절의 가동범위로 나타난다. 제 아무리 다리힘이 강하고 지구력이 뛰어나도 발이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결코 뛰어난 태권도선수라 할 수가 없다.

태권도의 빛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화려한 발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좋아야 한다. 유연성은 스트레칭, 요가, 유연체조 등으로 키워진다. 나이가 든 노인들의 몸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이 유연성이 둔화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이라도 요가나 스트레

칭을 매일 계속하고 있으면 유연성을 되찾아 젊은이 못지않은 우아한 몸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된다. 할아버지 젊은이들이 유연성을 위한 운동을 생활화 한다면 스포츠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돋보이는 몸움직임으로 눈길을 끌 수 있게 된다. 몸이 좀 굳은 사람은 따뜻하게 목욕을 하고 난 뒤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면 근육이 잘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유연성운동의 생활화를 권한다.



▲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을 강화하고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키워야 화려하고 강한 기술을 펼칠 수 있다.

한·말·숨·드·리·겟·습·니·다



류 명 석

전 국민일보 체육부장
태권도 연구개발 특별위원

송암 태권도 700여 지부에
15만여 수련생
클린턴 대통령 지도
해외사범들 단합에 큰힘

국기 태권도는 이제 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세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

전통 무도 태권도의 빛나는 외교적 성과와는 달리 세계를 영도해 나갈 수 있는 정신, 역사, 품세의 개발 등 내실면에서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많은 태권도인들의 지적이다.

특히 스포츠화만을 서두르다보니 근본적인 무도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기적 측면을 볼 때 공격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진데 반해 기본인 품세의 개발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채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태권도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7천여개의 태권도 도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의 90% 이상은 초·중·고교생 및 미취학 어린이들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될만큼 국제스포츠무대에서 위상은 높아졌지만 국민 스포츠화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때문에 태권도는 주산, 미술, 음악 등과 같은 어린이 과외학원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받고 있다.

다행히 대한태권도협회가 지난해 말부터 온 국민의 사랑 받는 생활 스포츠의 발판 마련을 위

해 ▲수련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경기규칙 개정 및 품새개발 ▲역사, 정신, 사업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다. 또 국내 및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태권도 성전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도 한국 태권도의 앞날에 밝은 전망을 갖게 해주고 있다.

한편 이와 때를 맞춰 정통 태권도인이면서도 그동안 이단의 길을 걸어왔던 재미 태권도 사범 이행웅씨(60)가 지난 3월 15일 세계태권도연맹 및 국기원, 그리고 국내 태권도계와의 관련을 끊어왔던 지금까지의 자세를 고쳐 모든 업무에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지난 6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와 아칸소주를 무대로 태권도 보급에 나선 이씨는 69년 미국 태권도협회(ATA), 95년 세계정통태권도연합(WTTU)이라는 사실 단체를 창설했다.

그는 ATA 및 WTTU 산하에 7백여개 지부를 두고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에 8만여명의 회원과 15만여명의 수련생을 이끄는 태권도 지도자다.

물론 이들 단체나 수련생들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그리고 미국올림픽위원회(USCO)산하 미국태권도협회(USTU)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조직 단체이다.

이 단체는 수련생 및 유단자의 승급, 승단 심사조차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연맹과 국기원의 품새나 경기를 조차 무시하고 이씨가 창안한 송암태권도 품새와 경기룰로 경기를 치루고 그들만의 세계대회도 개최하는 등 독자노선을 걸어왔다.

그의 태권도 9단 인허증도 세계 공인 기관인 국기원에 의해 인정된 게 아닌 자신의 ATA소속 제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연맹 소속의 정통태권도인들로부터 이씨는 철저히 외면 받는다 하면 분파의 핵심 인물로 기피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렇지만 그는 해외동포 사범 중 태권도를 세계에 널리 알린

해왔던 그였지만 이번 약속은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가 회귀 한다면 그동안 분파와 말썽으로 얼룩져 온 해외동포 사범들의 단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해외동포 사범의 단합은 앞으로 태권도가 올림픽대회 정식종목으로 뿌리 내리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특히 이씨가 이끄는 ATA나 WTTU에는 태권도를 상품으로 한 이벤트 사업의 귀재들이 많다.

태권도계가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태권도가 또 한차례 제도약의 기틀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가 창안한 송암태권도의 품새나 경기룰 중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기술이 상당히 있다는 게 태권도인들의 평가다.

그가 미국서 가장 성공을 거둔 성인과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에어로빅성 및 물리치료적 건강

이행웅씨(세계연맹 국기원) 진정 돌아오겠다면 넓은 포용력으로 따뜻히 맞이하자

인물 중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을 직접 지도했고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정신적 태권도 지도자로 추앙 받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KBS는 지난 3월4일 해외 동포상 특별상을 수여 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가 이번 귀국길에 자신의 스승인 국기원의 엄운규부원장과 태권도협회의 이흥주상임부회장에게 세계연맹 및 국기원으로서의 회귀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공인 9단 자격도 국기원으로 부터 재심을 받겠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태권도 인들을 통해 회귀 약속을

품새는 당장 국내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협회가 현재 추진중인 성인, 노약자 수련생들을 위한 건강품새 개발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양쪽을 접목 시킨다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태권도인 모두가 힘을 모아 세계를 영도해 나갈 수 있는 역사 정신의 연구 및 품새의 개발을 빠르게 서둘러야 할 이때에 다소 튀는 삶을 살아온 이행웅씨의 회귀를 포용력 있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싶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복싱

BOXING

인기높은 일본여자 스파링대회 올 가을에 두번째대회 열 계획

이웃나라 일본에 여자복싱붐이 일고 있다. 전에도 여자복서 지망생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수는 몇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8일 오사카에서 열린 첫번째 「전일본 여자 복싱 스파링대회」는 그 고장 오사카 뿐만 아니라 가나가와, 히로시마, 돗토리, 나고야 등지에서 모여든 20여명의 여자복서들이 참가해 매스컴의 눈길을 끌었다.

스파링을 앞두고 심판으로부터 「스파링은 2분 3라운드로 치러지고 여성의 급소인 가슴을 고의로 가격하면 감점, 그리고 귀고리 등은 빼놓도록」이라는 주의가 있었다.

스파링은 치르고 난 뒤 여성파이터들의 소감은 여러가지였다.

『두려움과 즐거움이 한덩어리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승리했다고 손이 들려지는 순간의 기쁨이란 지금까지의 맞본 일이 없었던 감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과 같은 12온스의 큰 글로브가 아니라 진짜 작은 글로브를 끼고 헤드기어 없이

거루고 싶습니다.』

『패배의 분함을 난생처음 맛보았습니다.』

『저 자신에게 모자랐던 것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지기는 했지만 경기전의 정신적 압박감에서 풀려났을 때의 알찬 느낌이 참 좋았어요.』

참가자들은 거의 모두가 『편견을 없애고 여자복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주최측인 클레이체육관은 첫번째 대회의 반응이 좋는데 용기를 얻어 올가을에 두번째 대회를 열 계획이다

여자복서 뇌손상으로 수술

킵복싱에서 전향한 여자복서가 데뷔전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까지 받았다.

지난해 12월11일 미국 미조리주 샌트 조셉에서 치러진 여자복싱경기에서 캐더린 더럼은 스미야 아나니와 겨룬 뒤 선수대기실로 돌아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가 다음날 뇌수술을 받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의식을 회복했다.

이번일은 복싱에서의 뇌손상을 남자선수들 뿐만 아니라 여자선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삼 깨우쳐준 사건이었다.



▲헤드기어를 쓰고 무거운 12온스 글로브를 끼고 치러진 여자복싱 스파링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난생처음 생존경쟁의 원점을 체험했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가라데

KARATE

극진 가라데 세계타이틀매치 채택 프로복싱처럼 세계랭킹 도입

재일동포 고(故)최영의가 창시한 극진가라데는 프로복싱처럼 세계랭킹을 정하고 챔피언에게 도전자가 도전하는 세계타이틀매치 시스템을 채택하겠다고 극진회관의 문장규 관장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극진가라데는 4년마다 무제한급의 세계선수권대회를 열고 있으나 이 대회만을 고집 할 경우 세계정상급 강호들끼리의 대결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세계랭킹과 타이틀매치제도를 도입한 것은 첫.

문장규 관장은 『4월20일 도쿄 료고꾸 포구기강(國技館)에서 남자 4체급, 여자 2체급의 97년도 세계체급별 가라데도 선수권대회 극진세계랭킹전을 치러 챔피언을 정한 뒤 도전자들이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원 매치(ONE MATCH)시스템으로 세계타이틀매치를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로복싱이나 무에타이 아닌 격투기가 원래치의 세계타이틀전을 채택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격투기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극진가라데는 무도로서 보기 드물게 프로복싱처럼 세계랭킹과 세계 타이틀매치 제도를 도입한다.

유도

JUDO

유도와 기술 비슷한 몽골씨름 기술만 익히면 몽골도 유도강국

몽골은 격투기가 강한 나라다.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에도 몽골선수들은 레슬링, 유도, 복싱 등 격투기에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다.

몽골의 전통민속경기인 몽골씨름에는 유도와 같은 기술이 많아서 유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의 가노킵 국제유도대회에 참가한 몽골팀의 바르진남 감독은 『유도와 몽골씨름에는 공통의 기술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엎어치기, 밧다리 후리기, 안다리 후리기 등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밝혔다.



▲96년도 가노킵 국제유도대회에 참가한 몽골유도대표팀. 아래줄 가운데가 89년 베오그라드 세계선수권 95kg급 은메달리스트인 바르진남 감독. 오른쪽이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60kg급 동메달리스트인 나르만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몽골씨름은 시간제한이 없어 때로는 2~3시간에 걸쳐 경기할 때도 있다』는 바르진남 감독 말에 따르면 스테미너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바르진남 감독은 89년 베오그라드 세계유도선수권대회 95kg급의 은메달리스트다.

몽골에는 약500명의 유도인구가 있으나 그 바탕을 이루어진 몽골씨름은 누르기 등이 없기 때문에

누르기, 굳히기, 꺾기 등에서 조금 처지는 편이다.

그동안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65kg급 은메달리스트 담딘, 71kg급 동메달리스트 다바다라이,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60kg급 동메달리스트인 나르만다 등을 낳은 몽골유도는 앞으로 기술만 더 닦는다면 유도강국으로 떠오르게 될 공산이 크다.

검도

KENDO

15년동안 관원 줄지않는 도장 칭찬으로 용기줘 인성교육 힘써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검도인구 특히 소년검도인구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15년동안 소년검사의 수요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도장이 있어 일본 검도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도쿄 에도가와(江戸川)구에 있는 슈부짱(修武館)이 바로 그 화제의 도장이다.

다른 도장들은 모두 소년검사의 감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도장만이 소년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검도 뿐만 아니라 다른종목의 무도도장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슈부짱의 지도 방침을 살펴본다.

지난 81년 슈부짱에서 검도를 배우기 위해 등록한 초·중·고생은 약 60명. 지금은 그 수가 70명으로 지난 15년동안 별로 큰 변동이 없다. 슈부짱의 오기노(野)관장은 모든 어린이들과 하루 한차례는 꼭 훈련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사람 한사람의 성장과정이나 여러가지 개인적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사람과 훈련하고 있는 동안에도 둘레의 훈련에 신경을 쓴다. 특히 소년들은 조금 실력차가 나면 초심자를 괴롭히는 경향이 있어 그대로 내버려두면 초심자가 그만두게 되는 원인이 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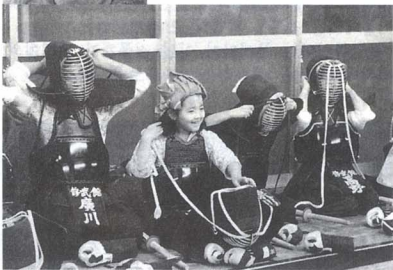
『훈련할 때에는 타이밍 좋게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오기노관장은 말한다. 훈련 중 서로의 공격이 엇갈릴 때 어린이의 공격이 성공되도록 받아주면 그 어린이는 「사범님에게 내 공격이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지니게 돼 더욱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가 초대관장인 아버지를 도

와 15년전에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와 훈련을 기다리기 위해 30명 가량이 줄을 섰지만 저에게는 고작 2-3명 밖에 줄서지 않았습니



◀인성교육에 힘써 어린이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슈부짱의 오기노 관장

▼어린이들이 마음을 열면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은 한없이 커진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린이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신 아버지의 지도방법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도장내의 훈련경기에서도 여간해서 이길 수 없는 어린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에게는 가법케라도 공격이 성공하면 깃발을 그쪽으로 들어주고 『참 잘했다』고 약속해준다. 그러면 그 칭찬이 계기가 되어 놀랄만치 발전을 보이기도 한다.

『어린이가 마음을 열었을 때의 발전가능성은 놀랍습니다.』

슈부짱은 스타를 만들지 않는다. 스타를 만들어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그 선수만을 집중 훈련시켜 우승을 노리는 일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단다. 어린이에게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 『검도를 잘못해도 호구의 끈을 잘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초심자와 호구걸치기를 잘도와줄 수가 있죠. 어른으로 자라면 학교의 선생님이거나 다른사람을 보살피는 일에 알맞는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어린이. 인사 잘하는 어린이. 훈련을 열심히 하는 어린이. 기합소리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린이. 이 모든 어린이를 오기노관장은 칭찬해준다. 그러면 그 장점은 더욱더 뻗어난다고. 아무리 검도가 서툴더라도 끈질기게 훈련을 계속하면 향상하기 마련이다.

『무제는 검도가 강해진다거나 경기에 이기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검도는 교양의 일부일 뿐

인생은 검도 뿐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자기마음에 거저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신을 검도라는 수단으로 키워주고 싶은 거죠. 그 정신을 학교 공부나 직장의 일에서 살려나간다면 보람찬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검도만 강해도 일반사회에 통용되는 교양이 없으면 쓸만한 인물로 자라지 못합니다. 검도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가 아니면 아무일도 못하는 거죠.』

초등학생 가운데 고학년이 되면 과외학원에 다니느라 도장을 그만두는 아이가 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도장에 계속 다니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경우가 많단다. 아마도 집중력에서 차이가 나고 공부에서의 스트레스가 운동도 해소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에타이

MUAY-THAI

롬피니 스타디움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해 12월8일로 무에타이(타이복싱)의 2대전당 가운데 하나인 롬피니스타스타디움이 개설된지 4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많은 관중들을 열광시켜왔던 이곳도 흐르는 세월에 어쩔 수 없이 늙었다. 이곳에 있는 병사양성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면 새해에는 새로운 롬피니스타스타디움을 넓은 터전에 지을 계획이다. 3층 건물인 새로운 스타디움은 투명 지붕으로 햇빛을 받아들이고 냉방 장치를 갖춘다. 이 새 롬피니스타디움이 완공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 같다.



▲내년에 착공하는 롬피니스타디움

후지하라 신격투술 일본시장에 파란예고

무에타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외국인으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은 일본 후지하라 도시오 한사

람 뿐이다.

후지하라는 실전가라테의 총수 최영의의 제자인 구로자키 겐지가 키워 낸 선수다. 구로자키는 태국 원정에서 무에타이에게 지자 최영의 곁을 떠나 킥복싱에 몸을 던져 심혈을 기울여 후지하라를 훈련시킨다. 후지하라는 1977년 방콕의 라자담난스타디움에서 현역 챔피언인 차랑퐁 소타이와 논타이를 전을 치러 피투성이 열전 끝에 승리를 거둔다.

그리고 다음해인 1978년에는 타이틀을 걸고 라자담난스타디움 인정의 라이트챔피언 몬사완 루크첸마이를 4회 46초에 KO시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무에타이 왕좌에 올랐다. 그 뒤 킥복싱을 떠났던 후지하라는 지난해 12월 신격투술 후지하라도장을 열었다. 신격투술은 구로자키가 창시한 새로운 격투기로 철저한 실전기술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신격투술이 격투기 흥행왕국인 일본시장에서 어떤 파란을 일으킬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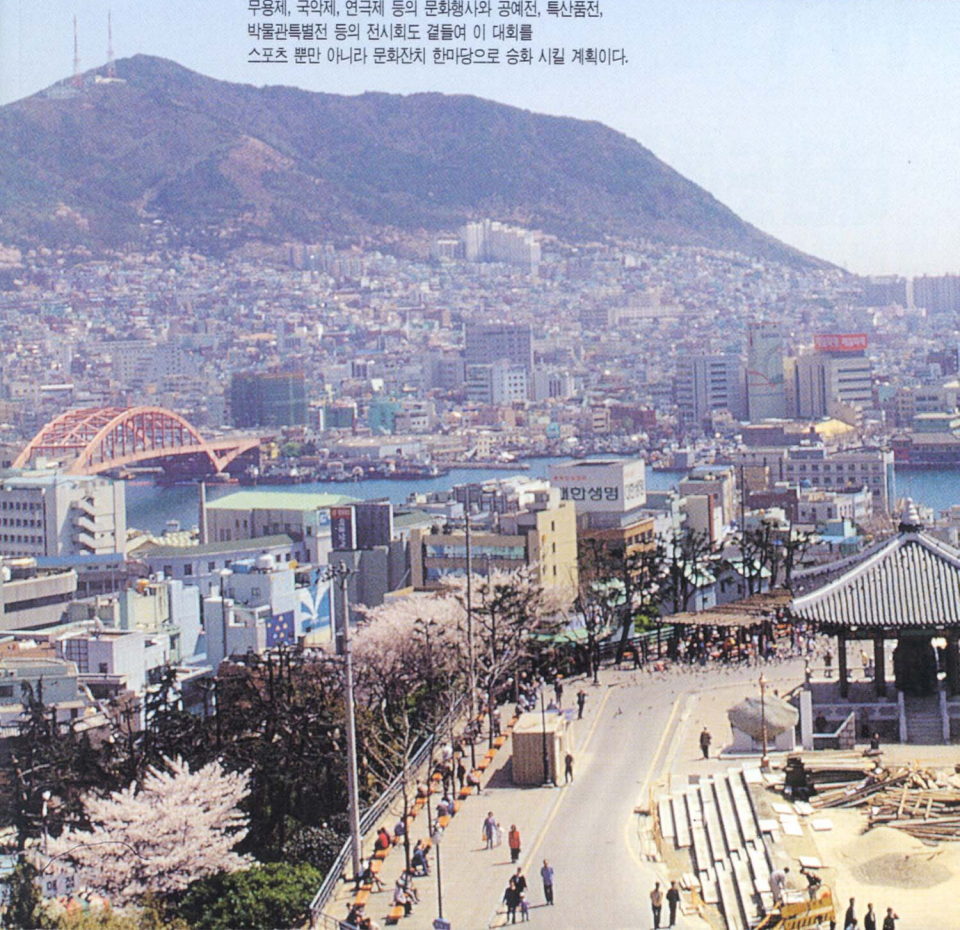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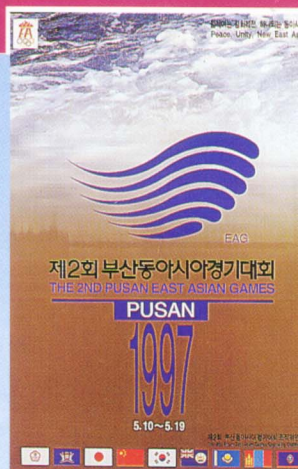


▲스승 구로자키(왼쪽)가 만든 신격투술도장을 연 후지하라

함께하는 평화제전, 하나되는 동아시아

바닷바람 싱그러운 부산서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동안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린다.
9일에는 경축전야제 행사가 부산 종합운동장에서
세계정상급의 국내외 성악가들과 연주자 그리고 국악단이
출연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진다.
선수촌에서는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도예품, 사진, 그림, 서예, 꽃꽂이 등 예술품을 전시해서
우리문화의 이해를 돕는 전시행사를 갖는다.
한편 대회기간 중에는 이 밖에도 열린음악회, 민속축제,
무용제, 국악제, 연극제 등의 문화행사와 공연전, 특산품전,
박물관특별전 등의 전시회도 겹들이 이 대회를
스포츠 뿐만 아니라 문화잔치 한마당으로 승화 시킬 계획이다.



함께하는 평화제전, 하나되는 동아시아



남자대표선수

왼쪽부터

문성고 = 김의철 (-58kg급)

한채대 = 김천규 (-68kg급)

청주대 = 고성석 (-80kg급)

상 우 = 강동국 (+80kg급)

태권도에는 금메달 모두 8개

5월 17. 18일 이틀동안 부산상고체육관서

태권도경기는 대회종반인 5월 17.18일 이틀동안 부산상고 체육관에서 열린다.
남녀 각 4체급 모두 8개의 금메달이 걸리는 올림픽방식으로 세부종목이 정해진
이번 대회에 한국은 8개 전체체급에 출전한다

세부종목

(남) 58kg 68kg 80kg 이상

(여) 49kg 57kg 67kg 67kg이상

경기일정

●5월17일 하오2시

남58kg 여49kg 남68kg 여57kg

예선 및 결승

●5월18일 하오2시

남80kg 여69kg 남80kg이상

여69kg이상 예선 및 결승

여자대표선수

왼쪽부터

리라고 = 심혜영 (-49kg급)

삼성 = 이승민 (-57kg급)

인천시청 = 김혜선 (-67kg급)

상명여대 = 김윤경 (+67kg급)



Peace, Unity, New East Asia



태권도경기장은 부산진구 당감동의 언덕위에 자리잡은 부산상고체육관이다. 관중석이 1,000석밖에 되지 않아 줄 아홉길하나 국제대회 치르기에 손색이 없도록 내부를 단장하고 있다.

경기장은 부산상고 체육관



국제대회 개최 홍보효과 크다

이번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조직위원장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자 KOC(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인 김문웅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다.

태권도의 세계화에 앞장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도록 이끌고 '86 서울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개최에 크게 이바지한 김문웅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도시와 개최국가를 온 세계에 알리는데 매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훈련장은 성지초교체육관

7개국 73명의 선수들은 본경기 출전에 앞서 부산 진구 범천동의 성지초등학교체육관에서 훈련을 갖는다. 경기장과는 2.7km.



함께하는 평화제전, 하나되는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행사

91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의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이 모여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평화를 다짐한다」는 올림픽이념을 이 지역에 살리기 위해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근세에 들어와서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등 긴장이 있따왔던 동아시아지역에서 평화의 제전인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스포츠강국이 출전하는 동아시아경기대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스포츠 수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 대회는 93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고 4년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카자흐스탄, 몽골, 미카오, 괌 등에서 약 2,2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복싱, 축구, 체조, 유도, 정구, 수영, 태권도 역도, 우슈, 조정 등 14개 종목에서 패권을 겨룬다.

북한도 EAGA(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회원국이긴 하나 이번 대회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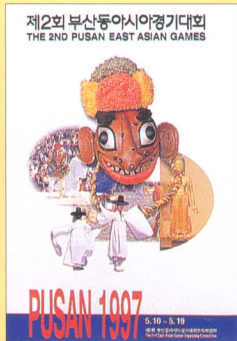
경기종목	세부종목	경기장	참가국	참가선수
개회식		구덕운동장		
육상	43	구덕운동장	9	370명
배드민턴	7	부경대체육관	7	112명
농구	2	구덕실내체육관	8	206명
복싱	12	KBS부산홀	8	86명
축구	1	구덕,울산,창원운동장	7	170명
체조	14	사직실내체육관	7	96명
유도	16	동아대체육관	9	147명
정구	6	사직정구장	6	81명
수영	37	사직실내수영장	9	310명
태권도	8	부산상고체육관	7	73명
역도	19	부산고대체육관	7	129명
레슬링	20	부산정보산업고	7	102명
우슈	6	사직실내체육관	7	78명
조정	12	명지조정경기장	6	114명
폐회식		구덕운동장		

선수촌은 해운대에

태권도선수들이 목게 될 선수촌은 해수욕장으로 이름난 해운대 바닷가에 자리잡은백운대 글로리 콘도 경기장과와 거리는 14km 자동차로 1시간가량 걸린다. 선수들은 서울버스로 선수촌과 경기장 사이를 오고가게 된다. 이 호텔은 한실과 양실 모두 244개의 방에 온천사우나까지 갖추고 있다.



Peace, Unity, New East Asia



▲의여가는 대화무드

부산시청은 청사건물에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달고 앞 로타리에는 선전탑을 세워놓아 대화무드조성에 힘쓰고 있다. 부산은 이 대회를 2002년 부산아시아간연의 리허설로 여기고 대화운영 등의 경험을 쌓기 위해 의욕에 불타있다.

▼대표팀 파이팅!

도장이 약 600군데, 수련인구 약 20만 명을 헤아리는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자리잡은 지현도장(관장 조준덕)의 어린이 수련생들 한결같이 중국인 한국의 대표선수들이 잘싸워주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쳤다.

▲체육복권 사세요!

부산의 지하철은 역마다 체육복권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다. 그리고 그 자동판매기에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달려있어 체육복권구입으로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도와주라고 호소하고 있다.



COVER STORY

「월간태권도」독점 공개

여자 헤비급 최강 정명숙의 보금자리

「현재로서는 여자태권도의 모든 체급을 통틀어 세계최강자임에 틀림 없습니다.」라고 국가대표 코칭스텝이 입을 모아 자신있게 말하듯 정명숙(22세 경희대)은 안정된 실력을 지닌 여자헤비급 세계챔피언이다.

175cm 장신에서 뿜어나는 발재주는 파워가 엄청나다. '93년과 '95년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기록했고 올해 월드컵대회에서 무난히 패권을 차지해 오는 11월 '97 홍콩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3연패도 거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세계최강 정명숙이 대표팀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 동지를 들고있는 태릉선수촌 여자숙소 313호를 노크해보았다.

미녀와 야수

실마 자기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일부러 고른 미스코트는 아니겠지만 고릴라 치고는 꽤 귀엽게 생긴 인형이 정명숙과 함께 살고 있다. 친구가 선물로 준 이 인형에게 이제는 흠뻑 정이 들었다고.

이것이 세계챔피언의 책상이다

올봄부터 모교인 중계동의 혜성여자고등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가는 정명숙은 훈련 틈틈히
실습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학생들에게 싸인해주느라 바빠지도 모르겠다.



▲ 나는 배용준이 좋다

여자태권도선수들 사이에서도 TV탤런트 배용준의 인기는
대단히 높다. 휴게실에서 TV를 관람할때에는 모두 한사람의
평범한 여성팬으로 돌아가 연습극 진행상황에따라 표정이
밝게 그리고 어둡게 변한다

▼언니같은 코치와 한패

『명숙아, 웨이트 트레이닝이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왔으니
한번 잘살펴봐』 친언니같이 자상한 임신자코치는
한번 잘살펴봐! 친언니같이 자상한 임신자코치는
선수 개개인의 훈련내용이 체력 기술수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져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여성지도자다.



COVER STORY

금남의 집



가족과의 포근한 대화
숙소 휴게실에는 공공전화부스가 마련돼 있다.
물론 우리문을 닫으면 밖에서는 그 내용을
엿들 수 없도록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 있다.
가족과의 대화는 언제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준다.

금남(禁男)의 성역

태릉선수촌 여자숙소에 남자들은 출입 못한다.
『월간 태권도』는 어렵사리 교섭해서 한국언론사상 최초로
(좀 지나친 표현인가?) 여자숙소 촬영에 성공했다.
그 여자숙소 옆에서.
왼쪽부터 라이트급의 신동선(22 인천시청),
밴텀급의 황은숙(24 인천시청)
정명숙, 플라이급 서미라(23 인천시청)

남자대표 2진 이란국제태권도 제패

금5 은2 동1



페더급의 김인동(조선대)은
결승에서 홈페드의 이점을 등에 짚
이란의 모강투를 8:4으로 누르고
패권을 장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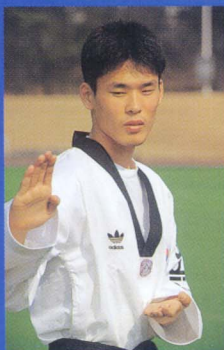
한국태권도가 제9회 이란국제태권도대회(4월9-11일, 테헤란
사무디체육관에서) 우승함으로써 종주국의 위신을 지켰다.
남자선수들로만 치러진 이 대회에는 11개국 13개팀이 참가했다.
한국은 대표2진을 출전시켜 판급의 박희강(한체대),
플라이급의 진승태(진로식품), 밴텀급의 김현웅(영천시청),
페더급의 김인동(조선대), 웰터급의 양원철(진로식품) 등 5명이
따낸 금 5개와 은 2개, 동 1개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미들급의 김민우와 라이트급의 김병욱은 은메달, 헤비급의
방원철은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플라이급의 진승태는 이란심판들의 편파적 판정과 텃세아유에도
불구하고 세계챔피언 2연패의 관록을 자랑하며 고난도 기술로
상대를 차례로 제압, 정상에 올라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진승태는 준결승서 이란의 자린콜라에게 뒷차기와 뒤후리기를
퍼부어 10:6으로 이기고 결승에서 아제르바이잔의 하자노프를
2회 TKO로 꺾어 우승했다.



웰터급의 양원철(진로식품)은
결승에서 홈팀 이란의 아소리와
점점 끝에 우세승(4:4으로
이러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플라이급의 진승태
(진로식품)는 눈부신
고난도로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의
영광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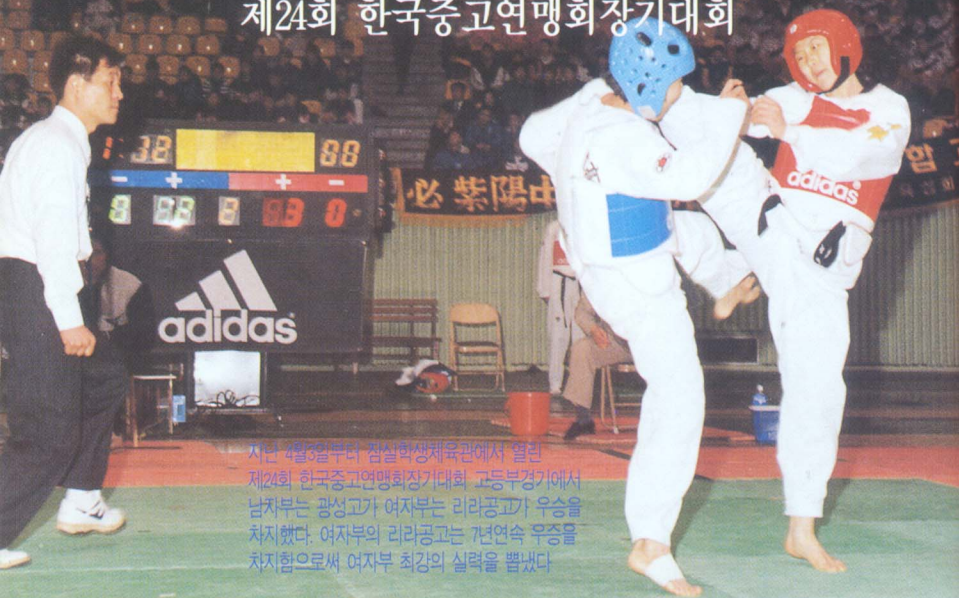
▲밴텀급의 김현웅(영천시청)은 결
승에서 이란의 파르마니를 RSC로
꺾고 패권을 장악했다.



▲핀급의 박희강(한체대)은
결승에서 이란의 메디자테를
판정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리라공고 7년 연속 우승

제24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대회



지난 4월5일부터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대회 고등부경기에서 남자부는 광성고가 여자부는 리라공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의 리라공고는 7년연속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여자부 최강의 실력을 뽐냈다



▲불꽃튀는 발길

여고고등부의 불꽃튀는 페더급경기. 청의 홍영재(경성고)가 홍의 윤성희(리라공고)를 6:5로 이겼다.

◀우리가 최강의 남자군

여고부 7년연속 우승을 차지한 리라공고선수들.
(뒷줄 가운데 유수천감독)

자랑스런 우승기▶

강적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남고부 우승을
차지한 광성고



▼이겼다! 우승이다!

남자고등부 라이트급 결승전에서 광성고 이재선(청색)이 풍생고 김재우(홍색)에 2:1로 이겨 우승. 승자와 패자의 표정이 희비쌍곡선을 그렸다.





카이로에 피어난 함박웃음

9월달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남녀동반 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 선수단의 표정은 미소 빛만 하리라. 그러나 '경기종료의 휘슬은 다음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다'라는 격언을 잊지 말고 11월의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하는 고된 훈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Photo News

태권도계

이모 저모

돌아온 태권도 세계최강

월드컵 해단식에 자리를 함께한 남녀중량우승의 주역들

앞줄 왼쪽부터 정명숙(레바), 박신미(미들), 조영미(웰터), 신동선(라이트), 진운호(페더), 황은숙(벤텀), 서미라(플라이), 박정혜(반) 등 여자선수들 가운데 왼쪽부터 백덕규감독, 이승환 무회장, 이종주 상임부회장, 유기태 단장, 이상균 태권도선수총장, 뒷줄 왼쪽부터 양태승 코치, 김재경(레바), 심기선(라이트), 신준식(페더), 황병관(벤텀), 최민웅(플라이), 김광태(반), 이종원(미들), 김경호(웰터) 등 남자 선수와 임신자 이자코치.



태릉선수촌의 태권도 전용 체육관

태릉선수촌에서 한참 개수공사가 진행중인 태권도전용체육관.
이 체육관이 단장을 마치면 태릉선수촌에는 태권도선수들의
힘과 재주를 뽐낼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



참가자 늘고 기량도 높아

'97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해마다 참가자의 수효가 늘어나고
기술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어 질과 양 두가찌 면에서 향상하고 있다.
97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8월11일~14일 올림픽체육관)
남중부, 여중부, 일반부, 그리고 올해부터 신설된 여자부는
보는 이들을 열광시키는 접전, 그리고 열전의 연속이었다.
각부의 참패연을 얼굴과 열띤 경기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더욱 패어난
선수로 자라도록
황춘성 부회장이
여자해비급 우승자
한원아(경성여실고)
에게 우승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어렵! 우리들이 남자중등부 우승자

앞줄 오른쪽부터 핀급 최규근(이수중), 플라이급 고성범(구월중)
라이트급 이재현(일동중), 뒷줄 오른쪽 라이트웰터급 임지관(배명중)
웰터급 정용훈(한성중), 라이트미들급 백주열(배명중)
미들급 허도식(웅동중), 라이트헤비급 박인철(구월중)
헤비급 김종철(강화중)

남자중등부

우리 얼굴 잘 기억해둬야 해요

앞줄 오른쪽부터 핀급 최준정(경성여실고)
플라이급 최유리(송곡여고), 밴텀급 김태정(송곡여고)
페더급 김정은(목포상고), 뒷줄 오른쪽부터
라이트급 류춘희(고창여고), 웰터급 이선영(강원체고)
미들급 박선화(고창여고), 헤비급 한현아(경성여실고)

여자부





일반부 패권을 장악한 챔피언들
 앞줄 오른쪽부터 핀급 박용재(충남전문대),
 플라이급 박용일(충남전문대), 밴텀급 허영배
 (사귀포시청), 페더급 신유섭(석사 체육고)
 뒷줄 오른쪽부터 라이트급 한영웅(영천시청)
 웰터급 정정렬(중부대), 미들급 송기섭
 (경원전문대), 헤비급 최완식(한국체육관)

일반부

한점차의

아슬아슬한 점전
 중등부 핀급 결승전에서
 최균규(이수중 청색)는
 장원상(부천동중)을
 4:3으로 이겼다.

